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38 1983년 1월 24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Monday, January 24, 1983

JAN 2 4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승용차는 뒷번호판 윗모서리가 정위치

스틱커 잘못 부쳐도 벌금

금년부터 생일별로 갱신…교통부의 새규정 유의해야

오는 2월28일로 현재의 자동차 라이선스 스틱커 유효기간이 끝나고 새 스티커를 달때는 보통 승용차의 경우 뒷번호판 오른쪽 윗 모서리에 달아야만 한다.

새 스티커를 달았더라도 만일 제자리에 붙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28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온타리오주 교통부대변인 존·쉬래게씨는 20일 그 동안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스티커에 관한 새 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예년과는 달리 위치가 잘못되도 벌금을 물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승용차의 스티커는 뒷번호판 오른쪽 밑 모서리에 부치도록 돼 있었다.

상업용차량은 지금까지의 앞유리창 대신 앞번호판 오른쪽 윗 모서리에 새 스티커를 부쳐야 한다.

잘못된 위치에 스티커를 부친 경우에는 교통부에 가서 스티커를 구입한 영수증이 부쳐진 자동차 소유증을 보이면 무료로 새 스티커를 또하나 얻을 수 있다.

금년부터는 과거와 같이 3월1일을 기해 일제히 갱신하는 대신 생일별로 스티커를 바꾸게 되며, 엔진 사이즈별로 다르던 스틱커값도 일제히 1대당 월 $4, 연 $48이다.

예를 들면 6월에 태어난 사람은 2월28일전 $24을 내고 83년 6월까지의 6개월분 스티커를 산 뒤, 다시 6월의 자기 생일이 돌아오면 83년 6월부터 84년 6월까지의 1년분 스티커를 사야한다.

1월이 생일인 경우는 2월 28일까지 $52을 내고 84년1월까지분의 스티커를 구입해야 한다.

스티커 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스티커신청서, 보험증명서및 자동차소유증등이다.

참고로 메트로 각지의 스티커 교부처(Ministry of Transportation License Issuing Agents)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중 부

492 College —— 929-5400
Queen's Park —— 965-2206
137 Yonge —— 362-3312

동 부

1164 Danforth Ave, 461-2785
1724 Eglinton E, - 757-5892
4865 Sheppard Ave, 293-5730
479 Kennedy —— 261-3756
2300 Lawrence Ave, 757-1511
2352 Kingston —— 261-2433
4695-A Kingston 282-1631
360 McRae Dr, — 421-9105
281 Scarborough Rd, 699-0910

북 부

3179 Bathurst —— 781-1398
1110 Finch W, —— 661-2322
8 Kingsdale —— 221-9717
4815 Leslie —— 497-9497
601 Oakwood —— 789-2816
570 Rogers —— 653-8690
10 Wilby Cr, —— 244-0911
1201 Wilson —— 248-7171
2100 Yonge —— 489-9018

서 부

2118 Bloor W, —— 767-6880
2998 Bloor W, —— 231-2219
100 City Centre Dr, Square One
Miss Cooksville — 275-9551
3025-B Lake Shore Bl W, 251-4941
8 Rexdale Bl Rexdale 742-1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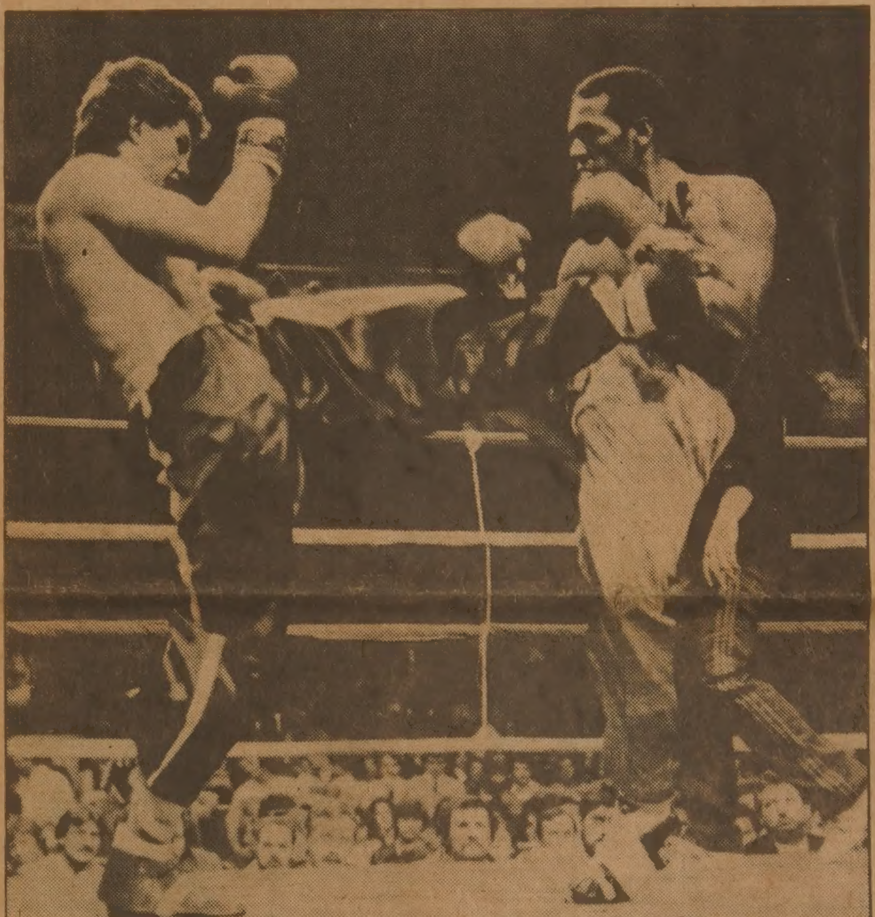
◆83년도 새 스티커의 위치

83년도 승용차 스틱커 요금표

출생한달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요 금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유효월수	6개월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유효기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연 $48, 월 $4,

•온타리오주 북부일부는 이 요금의 절반



◆킥·박싱(Kick-Boxing) 세계선수권대회가 토론토에서는 처음으로 20일밤 CNE 콜리시움 경기장에서 열렸다. 이색적인(?) 이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 5,400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각 체급별로 벌어진 이날 경기에서 가장 인기있은 게임은 오타와출신의 미들급 세계챔피온인 티리오선수와 미국 케사스에서온 스티브·메케선수와의 대전이였다. 이 경기에서 티리오선수는 도전자 메케선수를 4회 TKO로 물리쳐 6차방어에 성공했다. 위 사진은 온타리오 런던출신의 레오·럭스선수(왼쪽)가 디트로이트에서온 켄·코미선수와 대전하고 있는 모습. 복싱과 가라데를 섞어 만든 이 경기는 타일랜드에서 유래되었다.

미국의 대한정책 비판

김대중씨 첫 공개연설

(워싱턴발-15일)워싱턴에 체재중인 김대중씨는 지난 15일 워싱턴시내 한 교회에서 열린 「사형판결을 받은 2명의 한국인 정치범 구출집회」에 출석, 약 20분간 연설했다. 김씨가 공개모임에서 연설하기는 지난 연말 그가 미국에 들어온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모임은 작년 3월18일 부산의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주범으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똑같이 사형판결을 받은 김현장과 문부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국 그리스도교연합회등 인권·종교단체가 주최했다.

집회의 마지막 순서에 인사차 일어선 김대중씨는 자기가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를 회고, 한국말로 "그당시 내가 가장 괴로웠던 일은 최종판결을 받은 뒤, 사형집행까지의 사이의 자기 운명을 상상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옥중에서 알았으며, 그때는 그 방법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나, 이번 미국에 와서 그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는 그들의 참 동기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민주주의측에 서야할 미국이 소수인사만 포용, 한국민의 기대를 어긴데 대한 그들 방화자의 실망과 분노를 나는 지금 이해한다"고 미국정부의 대한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김씨는 「한국정부는 그들 젊은이의 참된 동기를 이해 못하고 그들을 그같은 극적행동으로 내몬 원인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고, 그들에 대해 너그러운 처벌을 하겠다던 가톨릭측과의 약속을 어기고 한국과 세계의 양심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해외거주 한국인수

104개국, 167만명

(서울 20일=연합)지난해 8월말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수는 104개국에 16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81년 보다 79,400명이 증가된 숫자이다.

외무부가 20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중 약 736,500명이 북미에, 약 676,800명이 일본에, 그리고 29,200명이 유럽지역에 살고 있다.

이 자료는 또 81년에 비해 미주에서는 약 50,500명이, 유럽에서는 7,400명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에서는 6,900명이, 일본에서는 5,900명이, 중동에서는 2,600명이, 아프리카에서는 280명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밝혔다.

◀금주의 행사▶

-1983년 1월24일(월)~30일(일)

◆1월28일(금)~30일(일) 본사주최 제2회 스키강습회
곳: 몽·트랑브랑(몬트리얼 지역)
연락처: 533-2361(본사)·598-37320(브랜돈스포츠사)

◆1월29일(토) 하오3시, 토론토한인회 정기총회
곳: 토론토한인회관(20 Mobile Dr, Tor.)
연락처: 755-9288(토론토한인회)

◆29일(토) 낮12시30분, 한국노년회 정기총회
곳: 토론토한인회관
연락처: 755-8079

◆29일(토) 하오6시, 영남향우회 창립파티
곳: Kennedy Banquet Hall
(991 Kennedy Rd,×Lawrence 동남쪽)
연락처: 743-3220(정상우)

◆29일(토) 하오6시30분, 서울대동창회 신년파티
곳: Triumph Sheraton Hotel(Hwy401 & Keel St.)

◀ 알 림 ▶

본지가 매주 싣고 있는 〈주간한국〉판은 서울로부터의 항공편 사정이 나빠 늦어졌으며, 더구나 타브로이드판이 아직 안오고 있어 이번주도 종전과 같은 대판으로 내보냅니다.

타브로이드판 인쇄용 원본이 도착되는대로 별도인쇄 부록으로 보내 드리겠읍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배전의 애독을 부탁 드립니다.

—— 토론토 한국일보 ——

오늘의 예금금리(1/7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루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5%		8%
90일	10%		8.5%
180일	10%	9.75%	8.5%
365일	10%	9.7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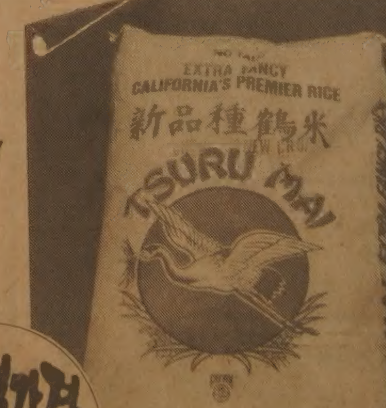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대호평! 스페샬 세일

구수하고 끈기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선학
햅쌀
특별가격
1월31일까지
$15.95


■ 물오징어(특대) 89¢ Lb당
~~$1.35~~
Box(13.2 Lb.) $11.75
■ 한국산 닭표간장 $1.49 (900ml)
~~$1.95~~
▲ 1월31일까지 계속합니다.
□판매처 삼복식품·제일식품·한발식품
서울식품(동부·서부·해밀톤)
□수입원 : 금성 Company Ltd.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리튼 공장 폭발사건

혐의자 5명 B.C.서 잡혀

(벵쿠버)이로비콕의 리튼공장 폭발사고 범인으로 지목된 5명이 20일 메트로 경찰에 체포됐다.

잭·아코로이드 메트로 시경국장은 브리티쉬·콜럼비아(B.C.)주 하이드로 발전소및 다른 3개소의 폭발사고에도 관련, 입건된 2명의 여자와 3명의 남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벵쿠버의 CISQ FM 라디오방송은 이들 5명이 벵쿠버 북쪽 100킬로미터 지점에서 검거되었으며, 그들이 타고 있던 밴추럭안에 폭발물이 대거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또 28상자의 다이너마이트와 3상자의 전기폭발뇌관등이 B.C.주정부 고속도로공사 창고에서 분실됐으며, 이 폭발물은 문제의 밴추럭에서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CKNW방송도 이를 보도하면서 B.C.경찰은 이들을 잡기 위해 하이웨이 도로공사원으로 가장하고 이들이 지나는 하이웨이에 눈이 쌓였다는 핑계로 일부를 폐쇄, 다른 방향의 길로 도주할 기회를 막은뒤 한참을 그대로 달리게 하다가 수대의 차량으로 일제히 덮쳐 부상자없이 일망타진했다고 전했다.

이들 5명은 지난 10월 미국의 크루즈미사일 유도장치부품을 제조하는 리튼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은후 자칭 반핵행동주의자로 자칭하는 "직접 행동파(Direct Action)"라는 단체가 폭발의 책임이 자기네들에 있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보낸자들이다. 이들은 또 반음화(Anti-Pornography)주의 캠페인을 위해 벵쿠버의 3개비데오·필름 스토어들도 폭파했다고 주장했었다.

종신형 복역 강간·살해범

"7년간 다른 7명도 살인" 자백

(캘가리)2명의 젊은 여인을 강간·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살고있는 32세의 흉악범이 7건의 다른 살인사건에도 관련되어 있음을 시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있다.

연방경찰소속 레이·포시드경사는 20일밤 기자회견을 통해 로버트·에드워드·브라운이라는 이 세기적인 살인마는 64년부터 81년사이 캐나다 전국에 걸쳐 일어난 7건의 살인미결사건에도 관련되었음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29세의 제임스·에드워드·피터와 함께 19일 퀸스·벤치 법원으로부터 16세와 23세의 젊은 여인을 살해한후 시체를 불에 태운 죄로 종신징역형을 받았으며 25년간 집행유예를 절대 받을수 없도록 판결되었다.

이날 재판정에서 윌리암·브레난 담당판사는 이들의 행위를 "남자가 여자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단정지었다.

검찰이 이날 배심원에게 밝힌바에 따르면 이들 2명은 81년 12월11일 스티븐여인을 번갈아 욕보인뒤 곤봉으로 때려 살해한후 시체를 도랑에 버렸다가 4일후에 다시 찾아가 시체를 태워버렸으며, 또한 82년 1월30일에는 혼자 가게를 보고 있던 보이드양을 납치, 인적이 드문 농장에서 강간한후 스크루·드라이버로 찔러 죽인다음 시체를 불해웠다.

사설학교 잇단파산

유학생 대상…1월에만 2개교

아시아지역등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주로 수용했던 토론토의 2개 사설학교가 지난 2주내에 추가로 파산, 새로 도착한 학생들을 울상짓게 하고있다.

이들 2개학교는 마크·인터내쇼날·아카데미(Mack International Academy of Arts Science)와 하이팍·스쿨(High Park School of Toronto)이다.

지난 가을에도 인터네셔날·칼리지·오브·토론토(International College of Toronto)와 센트랄·캐나다·칼리지(Central Canada College)가 파산으로 문을 닫았다.

유학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가 19개 있었는데 온타리오 교육성 자료에 의하면 지금은 12개교만이 운영되고 있다한다.

이 학교들은 대개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정규 캐나다 대학에 입학할수 있도록 12, 13학년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 불실사설학교가 파산됨으로써 남은 일부학교가 몰려오는 학생들로 호경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중 파크·에비뉴·아카데미(주소: 60 Berl Ave, Tor, M8Y 3C7)의 경우 파산된 학교에서 학생이 60명이나 이곳으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준비과정및 TOEFL반(12~13학년)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으로부터 7명이 수속중에 있고 그중 1명은 이미 신체검사가 끝나 봄학기에는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금년도학기의 봄학기는 3월7일, 여름학기는 6월6일에 시작된다.

이 학교에는 이춘호씨가 한국인관계 대표자로 있다.

이씨에 따르면 금년도의 경우 6과목을 배우는 1년학비가 등록비 $100을 포함, $3,000이다.

컴퓨터협회 세미나

강사는 정소량씨

[한인 컴퓨터협회(COSKA·회장 박성순)의 25회 정기세미나가 2월3일(목) 저녁 6시30분 온타리오 교육회관(252 Bloor St. W.)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IBM 캐나다에 근무하는 정소량씨, 강연 제목은 Application Development Productivity 이다.

연락처는 669-5232, 533-2742.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누구의 장난?

비데오필름에 섹스장면

비데오·테입을 빌려간 고객이 임의로 테입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바꾸어 놓아 비데오·테입 임대주가 울상을 짓고 있다.

20일 블루어의 코리아나·비데오·센터주인 손병헌씨는 한국 연속극 테입인 "아내"와 "사랑의 조건"테입 중간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노골적인 섹스장면을 끼어 넣은 것을 발견했다고 전하면서 노인과 어린이등 전 가족이 즐기는 도중 그런장면이 불쑥 나올때 얼마나 당황하겠는가, "장난이 지나쳐 짓궂다"고 말했다.

테입임대 비지네스가 쉽지 않다는 손씨는 공동·테입인 만큼 먼저 빌려간 손님이 테입을 잘 사용해 주어야 나중손님도 잘 볼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일이 체크를 하기도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손씨는 또 약2개월전 연속극 "장희빈"테입에도 섹스장면이 끼어들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전 가족이 함께 TV를 보다 기접을한 가정의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에 블루어에 개점한 코리아·비데오·센터는 현재 4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담풀이 시리즈〉

사촌이 논을 사면 ⑦

오 강 남 박사(종교학)

우열의식의 지양

사촌이 논을 사기만 하면 아파지는 배라니 이상스런 배다. 그러나 인간이란 동서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이상스런 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어쩌랴.

남이 소원성취해서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연하장에서나 쓰는 문구고, 속 깊이에서는 남이 잘되기보다는 안되는 것 보는 쪽이 마음 편함을 느낀다. 그러길래 남이 불운을 당했을 때 같이 울어주기는 쉬워도 남이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진정으로 같이 기뻐해준다는 것은 여간해서 하기 힘든 일이라고 하지 않는가.

사촌의 아버지, 그러니까 숙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 달려가 같이 울고 장례식 절차에서도 힘껏 도와주던 사람도, 그 사촌이 땅을 샀다고 하면 "그까짓 손바닥만한 땅─더구나 불모에 가까운 것, 나라면 거저 주어도 안갖겠다"고 콧방귀를 뀐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놈보다 큰 땅을 어디서 빨리 구해야 하겠는데"하고 아픈 배를 쓰다듬는다.

이런 이상스런 배를 소유한 사람을 보통 쓰는 말로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같다. 질투심이나 시기심이란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뭔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는 열등의식에서 생기는 마음이다. 남들, 특히 사촌들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언제나 조금이라도 그들보다 나아야지, 그들이 나보다 잘 되어서는 뭔가 꿀려서 못배기는 마음이다. 각자 생래적 가치와 고귀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남과의 비교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는, 말하자면 「비교급 인생관」이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대개 어느정도의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배아픔의 강도와 빈도가 보통 이상이면 그야말로 병적(Pathological)이다. 만사를 똑바로 보질 못한다. 교민중 누가 훌륭한 사업으로 성공을 했다는 말이 들리면, 동료 실업인들중에 "그까짓 쥐꼬리만한 사업체로 성공해봤자지"하는 일도 있고, 어느 교회가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동료 목사들중에 "그까짓 몇몇이 모여서 큰 소리치는것 별볼일 있겠소?"하는 소리도 듣는다. 모든것을 그저 "그까짓 것", 혹은 "그래 봤자"로 대한다.

물론 우린 우리 속에있는 이런 이상스런 배를 고쳐야 하다. 정확히 말해서 고약스런 「심뽀」를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서 사촌이나 이웃이나 동료나 동포들중에서 참으로 훌륭하게 되는 일을 보거든 진정한 마음으로 경하하고,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는 아름다운 마음을 길러야 하겠다.

여기까지는 흔히 들어온 이야기.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기 사촌들이 배아파할 것을 뻔히 알면서 논 샀다는 것을 가지고 자꾸 나팔을 불어대는 사촌이 있다면 그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할 것같다. 다른 사촌들이 아직 소작농의 신세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있는데, 요행히 자기가 남보다 먼저 논을 사게 되었다고 해서 이보라는 듯 「폼」을 잡고 「용용 죽겠지」식으로 떠들고 다니는것 역시 병적심성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도 역시 사촌들과의 경쟁관계에서 자기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사촌을 보다는 그래도 잘났다는 것을 과시하는데서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믿어온 철저한 비교급 인생론자였다는 점에서 다른 사촌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나도 누가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파봤다. 이제 너희도 아파봐라"하는 식의 고약한 심성의 발로라는 것이다.

진정으로 그에게 할 일이 있다면 나발을 불거나 거들먹거리거나 우쭐댈 것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같은 집안인 딴 사촌들에게 어떻게 해서 논을 사게 됐다든가, 무슨 논을 사는 것이 좋겠다든가 하는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므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할때 그들에게서 도움을 얻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남이 논을 샀다고 배아파하는 것도 고약한 일이지만, 자기에게 논이 있다, 으리으리한 집에다 고급가구가 있다, 밍크, 다이아몬드, 캐딜락, 링스 골프채가 있다, 값비싼 장거리 휴가계획이 있다 하는것을 가지고 남의 배를 아프게 하려는 것도 삼가할 일이다. 둘다 "남부럽지 않게", 혹은 "남보란 듯" 사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천박한 인생관에서 연유된 현상이다. 배아파하고 배아프게 하는 「복통인생」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살아야겠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萬5의 사나이

<154>

흔적 ⑤

朴男 그림

「대답하군요.」

경시청 소속의 지휘자가 감탄한 어조로 말했다.

「대답하기 이를데 없지요. 사건이 난 뒤 그곳 수사기관에서는 파티장을 찍은 사진을 검사했지요. 사진은 여러장이었는데 거기에 나타난 인물들을 모두 체크한 결과 단 한 사람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파티장소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결국 그가 암살자라고 결론이 내려졌는데…그가 바로 X라는데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했지요.」

「이사진을 가지고 그를 찾아낼수 있을까요? 오래전의 사진인데…」

「우리는 이 사진이 그의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변장한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는 워낙 변장의 명수이기 때문에 본 얼굴을 알고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본 얼굴을 알고있다해도 변장을 하고 다니니까 찾아내기가 어렵지요.」

「그렇다면 이 사진은 별로 기대할게 못되는군요.」

「그렇다고 볼수 있지요. 그렇더라도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그야 물론…」

그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인터폴 회의자는 영국인이었다.

그가 말했다.

「그가 도오꾜에 나타나서 여자를 죽였다는것은 다시 행동을 개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무슨 일인가 착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숨어있지 않고 자기를 노출시킨 겁니다.」

전세계의 인터폴지부에 비상 걸리고…

「무슨 일일까요? 일본에서 누구를 제거할 계획일까요?」

「그거야 알수 없지요. 어느 나라의 누가 표적이 될지는 그 외에는 아무도 알수가 없지요. 일본에 나타났다고해서 일본에서 누구를 제거할거로 본다는 것은 아직 속단이지요. 도오꾜는 잠깐 들른 정거장이었는지도 모르지요.」

「하여간 그가 여기서 일을 저지를거로 가정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야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부터 바빠지겠는데…」

「우리도 전세계 인터폴지부에다 비상을 걸어놓겠읍니다. 수시로 연락합시다.」

인터폴 관계자들이 돌아가자 지휘자는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이건 보통일이 아닌데. 모리무라씨의 딸이 살해되었다는건 부차적인 일이야. 그놈이 이 도오꾜에 잠입해있고 누군가를 노리고 있다면…그거야말로 큰일이야. 그리고 그건 우리 힘만으로는 안돼. 국내의 전수사진이 총동원되지 않으면 안돼. 이러고 있을게 아니라 급히 상부에 보고를 해야겠어. 이거 원 조용하다 싶었는데…」

그는 비상전화통을 끌어당겨 버튼을 눌렀다.

「급히 보고할 일이있읍니다.」

「올라와요.」

동의 스파이, 서의 특파원

동서양진영 추방열전

(런던)새해에 접어들면서 유럽을 무대로 동서 양진영이 외교관, 언론인들의 추방사건이 꼬리를 잇고 있다.

「스파이 활동」, 「선전·중상행위」등을 이유로 1월 상반기에 공적으로 드러난 것만도 7건이나 된다. 이들 추방사건은 동서간의 긴장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정부는 지난 12일 국제소맥(밀)이사회의 소련인 통역 우라지밀·체르노프(31)를 간첩혐의의 유해인물로 국외퇴거를 요구했다. 영국의 소련인 추방은 81년8월의 주영소련대사관 2등서기관, 82년12월의 동 주재무관에 이어 최근 1년반사이에 3명째이다.

영국의 소련인 외교관및 국제기관 직원의 추방사건은 70년대초의 105명 추방사건 이래 오랫만에 생긴 일로, 최근의 연속추방이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일, 스위스에서 소련외교관 2명이 간첩으로 국외추방 당했고, 지난 성탄때 수웨덴에서도 소련외교관 3명이 간첩으로 추방당했다.

한편 동방측(공산권)의 추방·국외퇴거사건도 새해들어 연발하고 있다. 1월12일에는 서독잡지 〈슈테른〉지의 동베를린 주재 특파원이 「호넥커 암살미수사건이란 허위중상기사」(동독 ADN통신)를 썼다하여 48시간이내에 국외퇴거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폴랜드에서는 1월들어 영국 BBC방송 와르샤와 주재 특파원이 기자로서의 체재사증의 연장이 거부되어 추방은 아니나 폴랜드 체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특파원과 함께 일하는 폴랜드인 조수들중에도 취재나 기자활동에 필요한 증명서 갱신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고, 미국 UPI통신의 와르샤와특파원과 그녀의 조수가 구속되었다.

또 소련·라트비아에서는 스웨덴인 어머니와 아들이 구금·추방된 사건이 생겼다.

런던관측통은 추방사건의 배경으로 안드로포프 소련 신체제의 등장을 들고 있다. 반체제파의 지하문서 유출로 인해 보다 날카로운 감시의 눈을 부릅뜬 소련 신정권의 자세가 1월초와 프라하에서 열린 공산진영 수뇌회의에서도 승인되었고, 그들 각국이 공산당의 위신회복, 권위확립, 감시강화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통은 보고 있다.

◆영국에서 추방된 소련인 체르노프.

반면, 보수주의형의 서방측에서는 특히 우익진영이 "안드로포프의 프로필은 비밀경찰 KGB수령의 모습"이라고 주장, 이제까지보다 심한 동측수뇌에 대한 공격논조가 나오고 있다. 폴랜드등 자유화의 동향이 반체제파와 밀착된 동측(공산측)에 있어서의 정보수집을 둘러싸고 공산당국과 서방측 저널리스트의 관계는 긴장도를 더하고 있다.

동서의 「추방경쟁」경향은 서독의 본에서 열리는 서독수상과 그로미코 소련외상의 회담, 부쉬 미국부통령의 유럽방문에서도 긴장완화의 검토면에서 필연적 문제로 취급될 것이다.

내달 마드리드(스페인)에서 재개되는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예상되는 「프라하선언」을 둘러싼 동서논쟁에서도 「헬싱키선언」에서 주창된 인적교류·정보교류의 촉진이라는 원칙에 입각,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폴랜드, 군기밀사진건으로 UPI 특파원 추방

(와르샤와=로이타)폴랜드 국영통신 PAP에 따르면 UPI통신의 루스·그루버(33)와르샤와 주재 특파원은 1월12일 스파이활동 관련이유로 국외퇴거가 통고되었다.

그루버 여류특파원은 지난 11일 하오 경찰에 체포되어 12일 석방직후에 국외퇴거 명령을 받은 것이다.

UPI통신 와르샤와지국은 1월11일 "구다니스크에서 촬영한 보도용 사진을 보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폴랜드인 비서 안나·올세프스카(36)가 기차역으로 찾으러 갔다. 그 우편물 속에 군사기밀인 병영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그루버 특파원은 비서와 함께 구속되었으나 PAP통신에 의하면 "범행의사가 없었으므로 기소는 면했다"한다.

◆폴랜드에서 추방·통고를 받은 미국 그루버 특파원.

그러나 올세프스카 비서는 12일 현재 석방되지 않았다.

주택·사업
매 매

1)Dufferin/Steeles
4 베드룸, 3,050 sq.ft,
1년된 새집,
$17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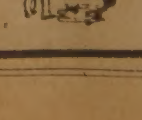
2) Yonge/Eglinton 4 베드룸 $219,000
3) Keele/Finch 3 베드룸 $179,000
4) Dundas/Neilson 3 베드룸 $133,000
5) 커피, Fish & Chips (Dufferin mall)
6) Variety (Oakville)

황 순 일
☎ 481-3443(B) 745-5485(집)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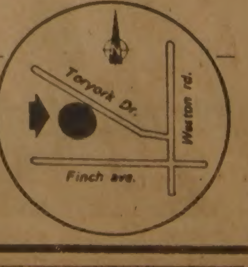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24시간 토잉써비스(☎ : 745 : 7400)
*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 (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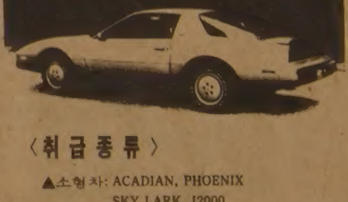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 (B) 749-0555
(R) 881-4053
송 대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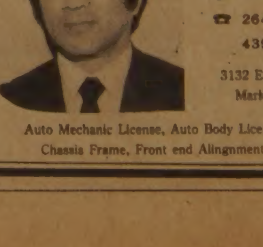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페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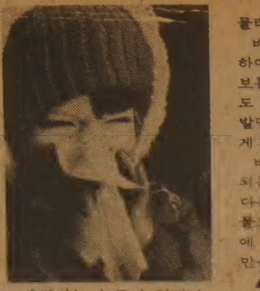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감기는 「바이러스病」 對症療法 밖에 없다



▲감기는 누구나 잘걸리는 「친근한」병이지만, 증세에 따라 열이나면 해열제를,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쓰는등 케이스에 따라 약을 쓰는 대중요법밖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겨울하면 으레 감기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인삿말처럼 돼있다. 감기는 겨울에는 물론이지만 봄이나 가을, 더구나 여름에도 감기에 걸린다.

사람은 누구나 감기에 잘 걸린다. 나는 한평생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다고 장담하는 사람이라도, 그의 혈청을 검사해보면 과거에 몇번인가 감기 바이러스에 침범을 당한 흔적이 발견된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의 경우, 한달에 한번씩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는 이다지도 우리에게 친근한 병인데, 『감기란 어떤병이냐?』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곤란한다. 소위 「감기」와 「유행성 감기」는 「독감」이니 하는게 연상되는 정도다.

하나, 여름철에 특히 유행하는 무서운 해독을 끼쳐주는 [illegible]나 뇌염의 일종도 역시 감기의 병원체와 같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그밖에도 폐결핵과 흡사한 감기도 있고, 풀에서 감염되는 감기가 있는가 하면, 미국 군대에선 사병에게만 걸리는 감기조차 있다고 한다. 감기에는 이처럼 종류가 많은데, 그원인이 되는 병원체는 바이러스다.

인류는 옛날부터 온갖 전염병에 시달려왔다. 페스트 콜레라 티푸스 결핵등…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보면, 우리는 엊그제까지도 그러한 전염병의 위세에 전전긍긍해왔다. 인류의 지혜로서는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의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전염병들이 차츰차츰 모습을 감추어 갔다. 페스트 따위는 오늘날 문명국가에선 그환자를 찾아볼 수없게 되었다. 인류는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셈이다.

그러한 병들은 모두 세균으로 인한 세균성 전염병이다. 그러나 감기처럼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아직 병원체조차 발견못해
폐결핵과 흡사한 감기등 종류다양
대중요법 밖에 묘책 없어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소아마비나 유행성감기는 겨우 병원체가 발견되어, 예방 백신(Vaccine)을 만들어낼 수있게 됐으나, 대부분의 바이러스병은 아직 병원체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내과나 소아과책의 「바이러스병」 항목에는, 치료법으로서 대중요법밖에 나와있지 않다.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쓰고, 두통이 나면 진통제, 기침이 나면 진해제를 쓰라는 따위다. 병을 일으킨 병원체 자체를 물리치는 요법이 아니다.

바이러스는 너무도 미세하여, 세균이라면 잘보이는 보통 현미경으로는 보이지도 않는다. 천자현미경이 발명됨으로써 겨우 볼수있게 되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병되는 전염병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동물이나 식물도 여러가지 바이러스병에 걸리지만, 사람의 경우만을 들어보자.

▲발진성 질환…천연두, 홍역, 풍진, 수두.

▲호흡기 질환…유행성감기, 보통감기.

▲간 질환…전염성간염, 혈청간염.

▲신경계 질환…소아마비, 뇌염, 광견병.

▲피부 질환…단순성포진, 대장포진.

▲기타…볼거리 등.

가정주부들을 위한 맨손체조 요령

간단한 체조로 주부들의 긴장을 풀고 새로운 기분이 될수 있는 맨손체조법을 소개한다.

▲어깨의 긴장풀기운동=

1.두 발꿈치를 한데 모으고 서서 손바닥을 밖으로 하고 두팔을 앞으로 뻗는다.

2.1과 같은 자세로 열까지 세고 팔을 옆으로 돌려 등뒤에서 깍지를 낀다.

3.위와같은 자세로 열까지 센뒤 몸전체를 뒤로 살짝 젖힌다.

4.눈은 위를 보고 다섯까지 센뒤 천천히 몸을 앞으로 굽힌다.

5.구부란채 팔을 뒤로 돌려 손을 맞삽고 위로 치켜올리고 목의 힘을 뺀다. 이 자세로 10까지 세다.

6.원위치로 돌아와 반복한다.

▲목돌리기운동=간단하면서도 목과 어깨의 근육을 푸는데는 훌륭한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동작을 느릿느릿하게하고 한 동작을 열셀때까지 계속해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

1.편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는다.

2.고개를 천천히 숙여 가슴에 턱이 오도록한다.

3.머리를 전후좌우 시계방향으로 돌린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바르고 빠른 한국일보는 여러분 곁에 있읍니다 · 광고및 구독신청접수 ☎(416) 533-2361

▲신비스런 분위기를 풍기는 샬롯·램플링.

아직도 수수께끼 같은 魅力발산

샬롯·램플링 신비의 女優

화장기 없는 얼굴, 무엇엔가 못박힌듯한 시선.

36년간의 절반을 그녀는 길고 가는 몸매와 갈색,머리로 영화스크린을 채우며, 신비스런 성적매력을 보여왔다.

「조지·걸」에서는 못된 여자로, 「훼어웰, 마이 레이디」에서는 신비스런 여인으로, 「더 나이트 포터」에서는 나치와 사랑을 나누는 변태성욕자로, 「스타더스트 메모리」에서는 신경성환자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물론 「더 버딕」에서 또한번 수수께끼같은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영국태생인 샬롯·램플링의 영화데뷰는 18세때.

18세때 데뷰…36년동안 "멋진 여성"
"2명의 男子와산다"소문 뿌리더니…

당시 모델지망생이었던 그녀는 사진사인 언니친구에게 포즈를 한번 취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영화 「Rotten to the core」에 출연케 되었다.

이 영화의 평이 좋자, 램플링은 선전차 미국을 방문했으며, 2번째 영화 「조지 걸」로 그녀의 배우위치는 자리가 잡혔다.

헐리웃 샤또·마몽호텔에서 일년을 지낸 램플링은, 그녀의 홍보를 맡은 브라이언·사우스롬의 아파트로 이주했다.

▲되돌아온 슈나이더와 와파트.

그러나 이것은 여러가지 소문을 자아냈다. 당시 브라이언의 아파트에는 그의 친구가 함께 있었는데, 사람들은 램플링이 2명의 남성과 산다고 이상한 말들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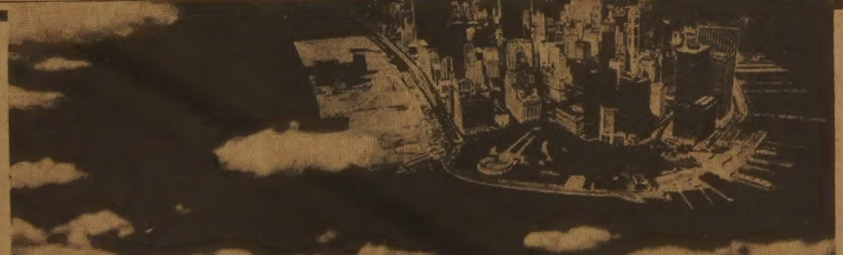
72년 램플링이 브라이언과 결혼식을 올리고 임신했을때, 램플링은 다시 화제의 초점이 되었다.

태어날 아기가 두남자중의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야하느냐 하는것이었다.

결국 램플링은 데일리·익스프레스신문을 고소했고, 승소했다.

그러나 전 나치 수용소장교와 그곳에 억류되었던 소녀와의 분방한 관계를 그린 「더 나이트 포터」에 출연한뒤부터, 브라이언과의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했다.

램플링은 78년 음악가인 장-미셀·자르와 결혼, 각기 첫결혼에서 얻은 자녀1명씩 2명, 그리고 그들 사이의 아이등 3명과 함께 세느강가에 살고있다.



즐겁고 추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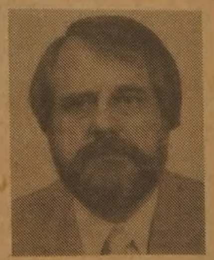
봄 휴가는 세방에서

□ 토론토 - 벵큐버 (왕복) $199

□ 토론토 - L.A. (왕복) $199

대표 유 승 민

서울 세방여행사
미국 나이아가라 대 관광학과
구벨프대 경영학과
토론토한국일보 편집국부장



Ed. Zander

메니저 CTC, AVON TRAVEL PANAM 항공사 등 26년 경력

관광여행 업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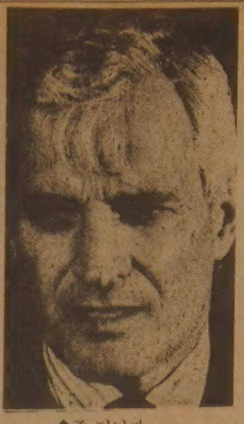
□ 항공권판매 : 모국방문·캐나다·미국등 모든항공권 취급
□ 여행수속대행 : 모든 여권업무와 비자서류 번역및 작성
□ 유학생상담업무 : 캐나다는 물론 미국의 각종대학 입학허가서 취득및 유학비자수속 대행
□ 관광업무 : 금번 한국인노사의 스카상습회를 비롯, 각종 관광단을 모집 예정이며 한국방문객들을 위해 나이아가라등 온타리오의 각종 관광명소를 친절히 안내.
□ 호텔·렌트카 예약

세방관광여행사
SEBANG TRAVEL SERVICE LTD.

720 Spadina Ave. Suite104 TORONTO, ONT. (416)928-3335 (Res. 532-9581)

"존·터너가 당수된다면 자유당인기 보수당 능가"

갤럽여론조사 결과



◆존·터너씨

현재 베이·스트릿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존·터너 전재무장관이 자유당을 이끈다면 조·클락이 이끄는 보수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달초 실시된 갤럽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당은 트루도수상이 이끄는 자유당을 15%앞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터너가 자유당을 이끈다면 어느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중 43%는 자유당에, 40%는 보수당에, 16%는 신민당에 찍겠다고 답변했다.

갤럽조사는 또 자유당이 터너가 이끌고 보수당이 조·클락이 아닌 온타리오수상 윌리엄·데이비스, 알버타수상 피터·로히드, 로스데일지역 연방의원 데이빗·크롬비, 몬트리얼의 실업가 브리안·말로니, 에드몬톤의 실업인 피트·포크링톤중 누구가 이끈다고 가정할때 어느당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데이비스가 이끄는 경우는 41%대 40%대로 가까스로 보수당이 이기고, 로히드가 이끄는 경우는 45%대 39%로 많은 차이로 보수당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크롬비, 말로니, 포크링톤이 이끄는 경우에는 35-45, 35-46, 34-47로 각각 보수당이 패배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여론조사에는 케네디언 성인 991명이 응답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주에 있을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클락의 당수 재임명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작년 소매업 전후 최악

새해도 마찬가지…업계 전망

캐나다의 소매판매량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기록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번스·푸라이(Burns Fry) 중계회사의 안게라·하크씨는 "소비자지출이 지난해 전후 최악을 기록한 이래 금년에도 잇달아 2번째 최악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크씨는 83년도 소매판매액은 82년도 보다 약5% 증가될 전망이지만 이는 소매가격증가율보다 훨씬 떨어져 실제 소매판매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될것으로 전망했다.

R.A. 데리회사의 판매분석가인 데이비드·부로디씨도 금년도 판매성장율은 5.5%가 될것이나 소매가격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6%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하크씨와 견해를 같이했다.

캐나다통계국(Statistics Canada)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1월까지 계속 16개월동안 소매판매증가율이 물가상승율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통계국이 발표한 잠정추계에 따르면 소매판매가 85억3천6백만달러로 1년전에 비해 4.1% 증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867억6천만달러로 81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8%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소비판매가격지수는 지난해 9월의 경우 1년전에 비해 무려 8.4%나 증가했다.

영남 향우회 창립

29일 총회와 디너파티

경상북도출신의 영남인들의 모임이 오는 29일(토) 하오6시 케네디·뱅킷·홀에서 발족된다.

이날 모임에서는 임원개선등이 있을 총회와 아울러 초청가수및 밴드의 연주, 댄스파티등이 있을 예정이다.

장소는 991 Kennedy Rd. (케네디와 로렌스 동남쪽), 회비는 $25이다.

연락처는 정상우씨(743-8220), 배기덕씨(423-9899), 김현모씨(251-6578)등이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새로나온 책〉

『연세동문주소록』

온타리오주 연세대동문회(회장 문영환)는 83년도 〈연세동문주소록〉을 발간했다.

회원명단·역대임원진(1974~82년), 「동문회칙」, 교가「연세의 노래」, 「응원가」가 실려있다.

이번 명단에 수록된 회원수는 메트로·토론토를 비롯, 오타와·해밀톤·런던등 총 131명이다.

서울시 1인당 GNP

미화 $2,111

(서울 20일=연합)81년도의 서울시민의 1인당 GNP(국민 총생산)은 미화 $2,113로 같은해 전국국민의 1인당 GNP $1,636보다 무려 29.2%나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81년도 GNP는 167억달러로 전국 GNP의 30.7%에 해당되는 12조5천억(17억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고려대학교부설 통계조사연구소가 서울시청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이다.

돌아와 쓰는 시·2

산레모의 달

조정대

여기서 어디까지
바다 일라
산레모에서 바라다 보는
지중해의 가슴은

오색빛 파도로 출렁이는
이국의 포구(浦口)어깨 넘어로
칸쪼네 음률에 실려오는
익은 물내음

야자수 잎사귀를 흔드는
내색하지 않는
바람의 진실

달보라에 취하여
빗겨나는 갈매 한마리

먼길 가다
반쯤은 지친 나그네
한짐 생활의 무게
여기 부릴까.

※산레모(San Remo) : 모나코에 인접한 이태리영의 아름다운 항구.

교회 교사 연합회

2월5일 제2회 수련회

토론토지구 한인교회학교 교사연합회에서는 제2회 교회학교교사 연합수련회를 오는 2월5일 새한장로교회에서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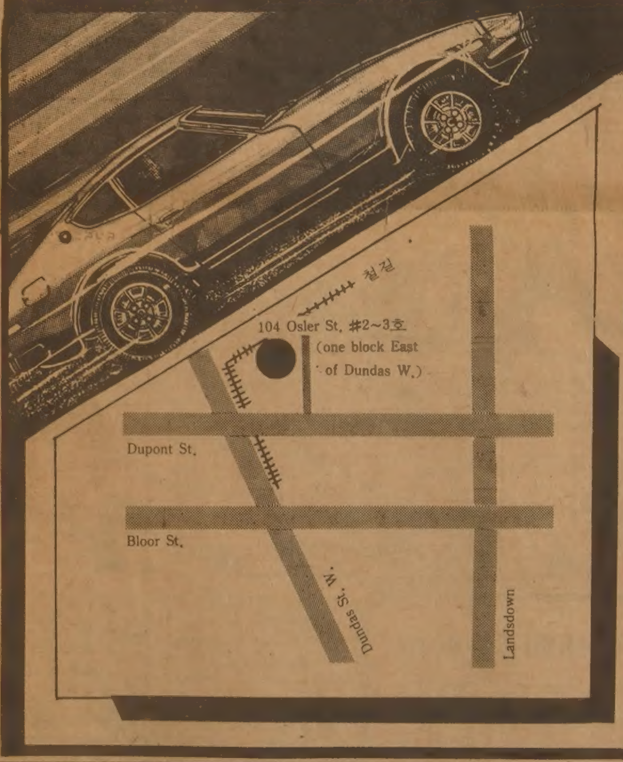
토론토 교역자회, 장로연합회, 기독여성회연합회등 3단체 후원으로 열리는 이 수련회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를 지도하는 각 교회의 교역자, 장로, 교사및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참가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인간성장에 따른 년령별 기독교교육위 효과적인 방법과 실제, 소구룹활동(Group Dynamies)을 위한 지도자훈련, 인간관계훈련등으로 구성된다.

일인당 참가비는 $10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630-4902나 633-9420(교환486) 이용술 장로에게 하면 된다. 새한교회 주소는 105 Wilson Ave. Tor.(전화: 482-4577)이다.

수영복 끈을 확 풀어볼까요…

▲TV극 「해피데이스」에 출연하는 테드·맨진리가 동료여배우 크리스탈·버나드의 수영복끈을 장난스럽게 입으로 풀어당기고 있다.



E.J. AUTO BODY
확장이전

새해에도 교민여러분께 만복이 같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Lisbon 오토바디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금번 제가 새로 확장이전해서 E.J. Auto Body shop를 open하게 되었읍니다.
과거와 같이 배전의 지도편달 바라오며 1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영두 올림.

- ㅁ수리후 일체 책임보증(1년간 보증수리서 제공)
- ㅁ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ㅁ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제공.
- ㅁ수리중 New Car를 무료대여.

(B)766-3122
104 Osler St. #2-3호 (R)439-6548

초대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뒤돌아 보면서 새해의 첫발을 내딛고 있읍니다. 생각하면 지난해는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단결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극복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읍니다.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으면서 협회에서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협회와의 결속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신년파티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해 올립니다. 단결의 척도는 참여도입니다. 어려우신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회원 전원이 부부동반하셔서 하루를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날은 정기총회및 사업보고도 겸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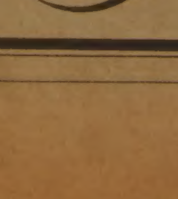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ㅁ때/1983년 1월29일(토)
오후6시30분 호텔뒷편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ㅁ곳/PRINCE HOTEL CROWN ROOM
900 YORK MILLS RD. (at Don Mills Rd.)

ㅁ회비/부부 50불(1인당 25불) ▲연락처: 임윤배(755-1746)

※4인조 악단및 많은 경품이 준비되었읍니다.



벡커 프랜차이즈협회
회장 김병진

한국일보

蘇서 페르시아灣 침공하면 美、北韓·蘇해안 攻擊

同盟國연합…油田보호

美、극비 防衛지침서 밝혀져

蘇軍을 방어에만 묶기위해

【워싱턴UPI聯=聯】소련이재래식군사력으로 페르시아灣의 유전지대를점령하려고시도할 경우 이에대한 반격으로 北韓 베트남및 소련해안지역에 공격을 감행하는것을 내용으로한 美蘇간의「대규모전쟁」에관한 전략을 美국방성이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공개된 총1백36페이지의 美국방성비밀문서「1984~88회계연도 방위지침」은『소련이 페르시아灣의 석유자원에접근하려고시도하면 대규모전쟁에 직면하게될것』이라고 지적하고『이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연합한 재래식군사력으로 소련본토를 포함한 소련의 이해가 걸린 지역에 위협을 가하고、많은 지역에서 소련과 소련의 사주를 받은 침략국들을 격퇴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침은『반격은 전쟁의 돌발사태로、우리가 영향을 줄수있는 어느곳이든 감행될것』이며『미국은 소련군을 방어적인 임무에만 묶어두기 위해 北韓 베트남및 소련해안지역에 대해 역습을감행한다』는 전략을 담고있다.

이 극비방위지침은 향후 5년간의 방위정책 전략계획및 경비지출등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美국방성의계획을 반영하는것으로 와인버거 국방장관이 서명한 82년3월22일자 비망록에 첨부돼있는것이다.

이 지침은『중동지역은 미국의 이익에 중요하기 때문에 노골적인 침략이 아니더라도 페르시아灣 원유수송로의 안전이 위협받을경우에도 미군을 중동지역에 투입하는 태세를 갖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이 지침은 미국이 최근「효과적인 우주전수행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한한편 우주배치 무기를 금지하는 여하한 조약의 체결도 봉쇄한다는것을 밝히고 있다.

이 방위지침은 국방성에대해「최우선과제」로 중요한 군사적 우위잠재력을 확보하는 기술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美군사력의균형을 강화하는것으로관련된「우주체제」를개발하도록 명령하고있다.

◇레이건美대통령과 나까소네日首相이 18일 白堊館에서 회담한후 악수하고있다。【위싱턴18日UPI電送=聯合】

美、日防衛力증강 촉구

兩國頂上회담 韓·日관계개선 환영

【워싱턴=李文熙특파원】레이건美대통령과 訪美중인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수상은 18일낮(한국시간19일새벽)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美日양국의「긴밀한 同盟관계」를 재확인하는한편 보호무역주의장벽을 구축하려는 압력에 저항、이를 극복할것을 다짐했다.

이날 오찬을 포함한 약3시간동안의 정상회담이 끝난후 레이건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때론 긴장상태에 빠지는 美日관계를「결혼관계」로 비유、『이따금 다투기는 하지만 여전히 행복한 관계』라고 말하고 오늘의 정상회담은 양국간의 밀접한 동맹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건대통령은 이어 자신과 나까소네수상은 양국간의 무역과 방위문제에 관해「매우 성과있는 토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레이건대통령은 일본의 방위증강속도가 미국이 일본에 촉구해온데 미치지못한다는 우려를 분명히하고 최근 일본이 취한 시장개방조치를 더욱확대、일본이 西太平洋지역에서의 방위역할을 증대해줄것을 촉구했다고 美정부관리들이 말했다.

美관리들은 이날회담에서 나까소네수상은 일본이 과거보다 많은 국제적인 책임을 질것을 다짐하고 최근 일본정부가 취한 對美무역완화조치와 군사기술협력조치에 관해 설명하는한편 자신이 취한 對美안보조치들은 일본국내의 정치적 여론범위를 넘어섰던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들은 이어 레이건대통령은 나까소네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서울에서 있은 韓日정상회담에 대해『韓日두隣邦사이에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한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美日두나라도 자는 일본이 중요한 협력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미국정책과 일치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레이건 대통령과 나까소네 수상은 한차례의 정상회담만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레이건 대통령이 나까소네 수상을 19일 조찬회에 초청、나까소네 수상과의 추가 제2차 조찬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나까소네 수상은 19일 하오 4시에는 백악관 출입기자들과、하오 5시에는 駐美일본특파원들과 각각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레이건 年內訪韓

【東京=聯】레이건미국대통령은 금년내에 한국을비롯한 아시아여러나라를 순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일본방문도 실현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日本經濟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이날 워싱턴에서 개최된 레이건대통령과 나까소네 일본수상간의 美日정상회담에서 나까소네수상이 레이건대통령의 訪日을 정식으로 초청했으며 레이건대통령도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할것을 수락했다고 보도하고 레이건대통령은 현재 연내에 한국을비롯한 아시아여러나라를 순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때 일본도 방문할것으로 나까소네수상등이 행한 일본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고 덧붙였다.

辛相佑의원 총재出馬포기

【釜山=金永煥기자】民韓黨의 柳致松총재는 오는2월9일 전당대회에서 單一후보로 出馬、만장일치로 당총재에 再推戴될것이 확실시되었다.

柳총재의 再추대는 지금까지 柳총재의 지도노선을 비판하면서 총재競選에 나설뜻을 시사해온 辛相佑전사무총장이 19일 柳총재와會同한뒤 출마의사를 포기함에 따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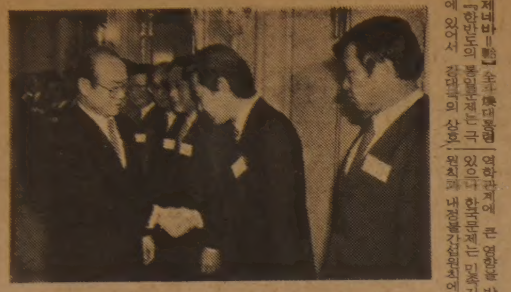
金珍培대변인은 이날 이문제와 관련、『柳총재와 辛사무총장은 앞으로 和解조로 풀려나갈 在野인사들의 再迎入문제를 비롯、전당대회 黨內外문제를 광범위하게 협의한결과 民韓黨의 단합을위해 競選을 피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社會漫評

『여기 눈이 많이 옵니다』
『그렇다면『大雪주의보다』』

"統一문제 南北직접協商"

全大統領 자이레紙회견 對話재개 先行되어야



◇全대통령이 한국청소년연맹임원들을 접견하고있다。

【제네바=聯】全斗煥대통령은『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극동에 있어서 강대국의 상호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한국문제는 민족자결원칙과 내정불간섭원칙에 입각하여 외부의 간섭없이 한국인간의 직접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굳은 신념』이라고 천명했다.

全大統領은 자이레의 유력佛語일간지 살롱고紙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남북한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로 관계를 정상화한후에 남북한주민을 대표로하는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통일헌법에따른 總選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민족이 그토록 소망하는 평화통일의 가장 빠른 길임을 본인은 확신하고있다』고 民族和合民主統一방안의 원칙을 재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지난17일자 1면톱과 6·7면에 회견전문이 게재된 이 인터뷰에서『핵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실현시키기위해서 실질적인 군축이조속히달성될수있기를희망한다』고말하고『한반도에 있어서도 긴장완화의 조치로 남북한상호간의 군비축소가 고려될수 있으며 본인은 이문제도 포함하여 남북한간의 신뢰회복을위한 민족화합방안을 북한에 제의하고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그러나 북한이 무력에의한 적화통일정책을 버리지않고 그들의 계속적인 군비증강으로인해 야기된 남북한간의 군사적 불균형이 실존하는것이 현실』이라고 지적、『남북한간에 우선 무엇보다 대화의 재개가 선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韓·자이레양국간의 협력활성화문제에 언급、한국민간기업의 자이레진출을 통한 양국간 협력증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당장 실천할수 있는 양국협력방안으로 ▲한국의 전문가파견 ▲자이레기술연수생에대한 초청훈련등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중소기업체가 자이레의 제조업분야에 직접 또는 합작투자를 함으로써 양국의 경제협력을 진척시켜나갈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한국이 북한과의 군사대치상황하에서도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것은 ▲생활수준향상에대한 한국민모두의 강한의지와 집념 ▲높은수준의 교육을받은풍부한 인력자원 ▲각자의 창의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수있는 민간주도형 경제체제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인을키워야 한다고 믿고 최선을다하고있는 한국민의 노력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에 自主정신심어줘야"

全대통령、한국靑少年聯 임원초치

全斗煥대통령은 19일낮 청와대에서 金容休총재등 한국청소년연맹 임원24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청소년연맹은 앞으로 조직의主體性을 살려 우리청소년들에게 自主정신을 일찍부터 깊이 심어주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것』이라고말하고『앞으로 청소년 문제의 취약부분을 잘 찾아내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의 心身단련을 통해 이들에게 올바른 정신교육을 시켜나가야 할것이며、이같은 일은 국가의 百年大計를 위해서도 매우 절실히 요청되는 과제』라고강조했다.

韓美 연합 야전군 사령관에 훈장수여

全斗煥대통령은 19일 하오 청와대에서 韓美연합야전군의 제임즈·보우트 사령관으로부터 離任예방을받고 保國훈장 統一章을 수여했다.

이자리에는 尹誠敏국방、朴贊兢총무처장관과 클리블랜드 駐韓美부대사、세네월드韓美연합사령관이 배석했다.

公務員 手當인상

정부는 19일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따라 長期근속 手當지급대상을 6급이하 전원으로확대하고 군인의 주택수당을 신설하는한편 敎職수당과 위험근무수당등을 인상조정키로했다.

신설되는 군인주택 수당을 제외한 모든수당은 1월부터 인상또는 수여대상자를 확대해 지급하며 군인주택수당은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개정된 공무원手當규정에 의하면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은 현행6급에대해 月2만~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7·8·9급까지 확대지급하고 ▲技能職은 6급이상에 대해서만 2만~3만원씩 지급하던것을 기능직공무원에게 모두지급키로했다.

또 소방공무원은 消防警과 消防衛에 대해서만 2만~3만원씩 지급하던것을 消防警이하 전원에게 확대지급하며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감이하에게 1만~3만원씩 지급하던것을 경정이하로 확대、4만~8만원으로 대폭 인상지급하는 한편 ▲公安職도 6급이하에게 2만~3만원씩 지급하던것을 5급이하로 확대、4만~8만원으로 인상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차관회의를 통과한 경찰과 공안직에대한 수당인상안은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조정될 가능성이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설될 군인주택수당은 중사이상 중령이하에게 월 2만원씩 지급되며 교육공무원의 교직수당은 월1만5천원씩 일률적으로 인상、교장4만5천원、교감이하 6만원씩 지급된다.

위험근무수당은 1백%인상、甲地9천원、乙地1만1천원씩 지급되며 현행4~9급에게만 월5천~2만원까지 지급해온 가족수당은3급이상에게도 확대지급되는데 배우자수당1만원은 84년1월부터 지급된다.

한편정부는 그동안 定額으로규정、지급해온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방식으로 바꾸기로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告

主婦 生活手記 입상자 결정

1등에 李癸出씨의「運命인줄…」

한국일보社가 공모한 主婦生活手記 입상자가 결정되었읍니다. 주부생활수기공모에는 국내외에서 총1백26편이 응모해 왔읍니다. 예심·본심을 맡았던 심사위원들에 의하면 이手記들은 한결같이 한번 읽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속으로 빨려들게 만드는 진솔한 글이었다는 평입니다. 어느 한편도 그냥 버리기 미안하고 송구스러웠기때문에 심사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상자및 입상작은 다음과같습니다.

▲1등=『운명인줄 알았더니 시련이었읍니다』(李癸出·釜山市西區西大新洞3가602 7통2반)

▲2등=①『부러진 나무』(姜福順·京畿道仁川市東區花水2동65 10통3반)
②『구멍가게의 창문』(林貞子·서울鍾路區貫水洞3의1 소다만식품점)

▲3등=①『파브르、데보라、그리고 알젠틴』(徐庚姬·서울恩平區鷹岩洞241의46)
②『어느날에 생긴 일』(민수홍·서울江南區論峴洞131의21)
③『어느 이민체험기』(金松子·7223 Valley Ave. Phila.PA. 19128 U.S.A.)
④『나는 이렇게 살았다』(李相玉·忠南大田市佳陽洞420의20)
⑤『행복은 이렇게 오더라』(김영숙·忠北淸州市사창동357의58)

한국일보社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地平線

야생마를 뜻하는 무스탕은 미국 포드회사의 자동차다. 자동차가 불황으로 안팔려 고심한 포드회사에서는「당신이 직접 디자인하는 차」라는 선전문구로 판매촉진에 나섰다.▼차체의 모델·스타일·색깔·시트의 디자인은 물론이고 엔진의종류、기어등 부품에따라 다양성이 크기때문에 마셜·맥루한의말마따나 미국의 자동차는 고객의취미와 의향에 따라 특별히 제작된다고 할수있다。컴퓨터계산에 의하면 2천5백만종의 변종을 만들수있다는것이다. 어떤 자동차를 살지 망설이며「과잉선택」에 고민하는것이 미국민들인지 모른다. 한데 서울시민의 경우는 얘기가 딴판이다.▼그나마 어떤자동차를 살까 망설이는 것도 아니고 어느자동차를 탈까를 고르는 것도 아니다. 덮어놓고 택시만 보면 달음질쳐서 차의손잡이를 누가 먼저잡나는경쟁을 가끔벌이곤한다。물론택시잡기가 손쉬운때도있고 장소에따라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려 탈때도 있다. 하지만 택시잡느라고 뜀박질 안해본 사람은 드물것이다. 선택의 여지란 조금도 없는것이 택시의경우라고 할수있다。합승이 금지된후 운전기사의 눈치를 살피는 습관이 어느새 시민들의 몸에배었다。승차거부를 당하지나않을까 하고 도심을 오랜시간 통과할때는 조마조마하기까지 한다.▼이런 승차난을 감안해서 그런지 교통부가 직접 택시회사를 만든다고 한다. 일반택시회사의 정확한 경영정보와운전사의 적정월급액수등을 산정하기위한것이 표면에 내세운 사유이다. 뜻과 고충을 알만도 하지만 이래야 비로소 정확한 행정자료를 얻을수 있다면 상공부는 무역의 오퍼상을 직접 차려야하고 국세청은 갖가지 기업체를 수없이 운영해야될것같아 좀 이상하다. 또 이 시험택시를 운행한다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할는지 보장할수도 없을듯 하다.▼교통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것도 아닌데 꼭 이럴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그렇지않고서는 택시행정을 위한자료정도도 제대로 못갖추나하는 아쉬움도 든다。전화사업은 이미 민영화되고 철도는 공사설립얘기가 나온지 오래며 은행도 민영화되는 추세다。담당자들이 택시나 버스로만 출근하면 간단히 알수있는것이 서울의 교통실태다。무스탕 얘기는 황송하더라도 눈앞의 빈차에 올라탔다가 승차거부로 무안을 당하지않게끔 시민의입장에서 달라는것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바람임을 아울러 말해두고 싶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83년도
신세계
단체관광계획

	성지순례	구라파관광
출 발	1983년5월6일(금)	1983년7월23일(토)
귀 환	5월19일(목)	8월8일(월)
기 간	14일	17일간
방문지	성지 7박8일 애급 2박3일 로마 3박4일	8개국 영국, 화란, 서독, 오지리, 이태리, 모나코, 스위스, 불란서, 이태리
요 금	$2,250(2인1실)	$1,960(2인1실)
신 청	1983년3월31일 전액불입	등록 : 1983년5월31일 $300불입 마감 : 6월25일 전액지불
기 타	한국인 안내자 동반 교황알현 알선	한국인 안내자 동반

■상기요금은 토론토 기준이며 타도시에서도 합류 가능합니다.

여행을 즐기십시요.
「신세계」는 여러분의 여행을
가장 추억에 남도록 도와드리겠읍니다.

IATA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김 창 범
R) 492 - 7525

社說

「立法豫告制」에의 期待
—公告대상과 期間 더 늘리는게 좋다

정부는 「입법예고제」의 채택을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일보 18일자 1면 보도).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새로 구상하는 이 입법예고제는 법령이나 부령의 초안에 대해 국민이 의견을 내세울수있는 「2주간」의 공고기간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대통령령으로 이를 제도화할 것이라 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정확하게 말하여 「행정부 입법」의 예고제라고 할수있다.

이제까지의 추세를 보면 우리의 입법작업은 국회보다 행정부측에서 보다 큰 이니셔티브를 취하고있는 만큼 정부의 이런 구상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통계에 의하면 8대국회때까지는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비중이 엇비슷했었다.

그러나 9대와 10대때부터 정부입법이 압도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이번 11대국회의경우 지금까지 2백88건의 법안이 나왔는데, 역시 정부측이 압도적으로 많은 1백80건을 차지했다. 의원측은 1백8건이다. 통과된 법안은 행정부와 국회의 비율이 더욱 벌어져서 행정부 1백51건에 의원 55건이다.

입법활동에서 행정부의 비중이 커진만큼 행정부의 입법예고제는 복잡하고 방대한 각부야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불필요한 마찰과 저항을 막기위해 효과적인 방편이 될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고있는 이 제도는 그 초점을, 예컨대 건축법이나 식품위생관리법처럼 「다수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있는 법령이나 부령의 초안」에 두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부가 구상하는 이제도의 적극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에 비해서 「긴급이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예고까지 필요치 않은 경우」라는 예외규정은 이 구상의 소극적인 한계를 나타내고있다. 이경우 정부가 생각하는 모처럼의 적극적인 의도가 「소극적 한계」때문에 흐려지지 않도록 신중 배려해야될 것으로 생각된다.

「긴급이나 보안을 요하는경우」엔 예외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수 있는 일이다. 하나 되도록 「입법예고제」라는 이름과 정신에 어울리도록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한 최대한 범위를 줄이는게 좋을 것같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고제의 적용범위를 건축법같은 소위 「생활입법」에 국한시키느니보다는 기본적으로 모든 입법안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 국민의 기본권에 관계되는 정치적 법안같은 것도 포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입법 목적으로나 예고제의 정신에 비추어서 합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리 공고하는 방법도 막연하게 「관보」같은것을 지정하는 이상의 보다 적극적인 규정이 소망스럽다. 이제도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지않고 효과적인 입법활동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홍보절차를 규정해야할 것이다.

「2주간」의 공고기간도 법안에 따라서는 더 늘려야 되지 않을지, 검토해볼 일이다. 공고기간은 단순히 법안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법예고제의 성패는 기본적으로 시민 개개인과 각 이해집단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순전히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입법예고제란 매스컴의 「정보청구권」에 이미 확보된 것을 또다시 규정하는 「屋上屋」이라고도 볼수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복잡하고 방대한 입법작업에 시민의 참여폭을 넓히자는 구상은 어느 모로 보나 환영할 일이다.

입법예고제의 의도가 충분히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더욱 넓은 안목에서 이문제를 생각하는게 좋다. 단순히 공고기간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분야의 기능집단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떠맡고 토론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금 공고 중인 서울시의 도심재개발계획안이 과연 규정된 공고기간내에 실질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될것인지하는것도 이문제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것이다.

무담보어음 支拂責任
—仲介者信用과 고객權益 보장돼야

속칭 短資會社로부터 무담보어음을 샀을경우 그 어음의 發行人이 지불능력을 상실하여 不渡가 났을때에도 이를 중개한 短資회사는 고객인 매수자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民事地方法院(합의10부)이 모 短資회사가 발행한 무담보 어음에 대해 不渡처리된것에 대하여 11명의 매입자가 그어음을 중개한 단자회사를 상대로낸 예치금반환 소송에서 그처럼 「중개한 단자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原告패소를 宣告한것이다.

이 선고는 法理論이나 判決內容如何와는 다른 次元에서 주목할만한 事案인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모든 단자회사들의 주요 업무대상이 무담보 어음이라는 실정과 企業의 단기자금융통에서 그 어음거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 연유한다.

또 신용기업어음을 사는 사람을 [illegible]

[illegible]

박테리아 遺傳因子 식물세포 移植성공

"작물耐性강화… 획기적增産"

美 몬산토分子生物學연구소팀

◇西獨을 방문중인 안드레이·그로미코 소련外相이 18일 헬무트·콜西獨수상과 회담한후 기자회견에 들어가고있다. 【본UPI聯=聯】

【세인트 루이스AP聯=本社】 미국의 한 유전과학 연구팀은 19일 유전과학사상최초로 한 박테리아의 유전인자를 식물세포에 이식하는데 성공, 농작물을 병충해및 화학물질에 耐性이 강하게 만들어 수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유전공학연구의 다원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발표했다.

세인트 루이스에있는 몬산토분자생물학연구소의 어네스트·자워스키소장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테리아유전인자를 식물세포의 분자구조에 결합시킨 이번 연구는 과학사상 최초」라고 말하고 「앞으로 해야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자워스키소장은 「항생물질에 대항하는 박테리아를 만드는 유전인자를 박테리아로부터 분리시켜 그유전인자를 식물세포의 염색체에 주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업적은 다른 유전적 특질을 한식물의 고유한 유전인자에 주입할수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연구결과는 세계의 곡물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첫걸음이 될것이나 적어도 90년대에가야 그 명확한 혜택을 입게될것이라고 전망했다.

中共 對美무역報復조치
原綿·化纖·大豆등 수입중단 밝혀

【北京UPI聯=本社】 중공은 19일 미국과 原綿 화학섬유 大豆등의 수입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으로부터 들여올 계획인 다른농산물의 수입규모도 축소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공해외경제관계및 무역성이 이날발표한 성명은 미국이 침체된 미국섬유산업보호를위해 미국에 수출되는중공산섬유의 수입쿼터를 일방적으로 삭감한조치를 취한지 5일만에 나온것이다.

지난14일 美·中共섬유협상이 실패한후 중공은 미국의 일방적인규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양국은 상호간 섬유분규를 해결하기위해 협상을 계속하자는데는 관심을 보이고있으나 아직까지 차기협상일정이 발표되지 않고있다.

중공은 미국의 농산물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다.

波노동자 가입꺼려 어용勞組외면

【바르샤바UPI=聯】 폴란드당국은 자유노조해체후 새로운 노조가 천7백개에 이르지만 가입자수는 12명에 1명꼴인 90만명밖에 되지않는다고 보도했다.

폴란드일간지 치치에·바르샤바는 자유노조 해체후 현재까지 법원등록을 마친 3공단위의 새노조가 모두 [illegible]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8361

蘇, 「零의 選擇案」거부
그로미코 "美우위 강화"주장

【본聯=聯】 안드레이·그로미코 소련외상은 18일 소련은 유럽 배치중거리미사일감축에관한 西方측의 「제로·옵션」(零의選擇)案을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미코는 이날 헬무트·콜 西獨수상과 회담한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소련측의 구축입장을 그와같이 밝혔다.

그로미코는 이어 소련이 제네바 군축회담에서 미국이 [illegible] 내용은 이제의를 받아들일경우 미국은 「지금보다도 더 월등한 核우위입장」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미코는 서방측이 보유한 유럽 배치 중거리核탄두 수는 소련보다 1.5배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美·온두라스 兩軍 내달 합동군사훈련

【워싱턴UPI=聯】 미국과 온두라스는 니카라과국경으로부터 16㎞떨어진 온두라스동부지역에서 2월1일부터 6일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美국방성이 18일 발표했다.

양국간의 합동군사훈련가운데 최대규모가될 이번 훈련에는 미국 육·해·공군 1천6백여명과 온두라스軍 4 [illegible]

蘇核위성 週末에 추락될듯
美국방성진단… 落下속도 加速

【워싱턴AP·UPI=聯】 소련의 핵추진첩보위성 코스모스1402호는 지난24시간동안에 낙하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기 시작, 18일상오11시17분(한국시간19일상오 1시17분) 현재 近地點1백88㎞, 遠地點 1백97㎞의 궤도를선회중이며 이번 주말께 추락할지도 모른다고 美국방성이 18일 밝혔다.

美국방성은 24시간에 평균1·6㎞정도씩 낙하하던 코스모스 1402호가 16~17일 사이에는 5㎞나 낙하했으며 17~18일 사이에는 6·4㎞나 떨어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코스모스 1402호는 20~29일을 더하하면 지구대기권에 진입하게된다.

親蘇 아프가니스탄정권 政治犯천원 무조건 석방

【모스크바UPI=聯】 親蘇아프가니스탄정권은 정치범천명을 아무 조건없이 석방했다고 소련관영타스통신이 18일 아프간英字紙 카불·타임즈를 인용, 18일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또 아프간종교지도자들이 「혁명선전」에 현혹되어 아프간을 탈출한 아프간인들에게 「가능한한 [illegible]

日 슈퍼컴퓨터관심 美군수업계

【東京AP=聯】 [illegible]

全대통령연설 크게보도
日紙들 "解禁조치국내외환영"

【東京=宋孝彬特派員】 일본신문들은 19일 정치활동被規制자의 단계적해제와 南北최고책임자회담의 무조건 개최등을 거듭제의한 全斗煥대통령의 신년도 국정연설내용을 외신면 머릿기사등으로 크게 보도하고 「全대통령은 특히 나카소네 일본수상의 한국방문을 역사적인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앞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계속 발전돼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신문들은 또 全대통령이 지난80년 실시된 정치규제법에 의해 묶여있던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활동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한것은 오는84년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키로 되어있는 한국의 정치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것이라고 지적하고 全대통령의 그같은 결단은 지난해 크리스머스때의 정치범 대규모특사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많은 환영을 받게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크씨, 동맥봉합 수술
왼쪽코 出血막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AP=聯】 세계최초의 영구인공심장 이식환자인 미국의 바니·클라크씨는 10일동안 계속되던 왼쪽코의 출혈을 막기위해 18일 오후 동맥봉합수술에 들어갔다.

전직치과의사인 클라크씨의 이날 수술은 수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고 유타대학 의료센터의 존·드완대변인이 밝혔다.

이곳 의사들은 지난14일 코에서의 출혈을 막기위해 코속에 풍선모양의 導管을 삽입했는데 18일 이 도관을 빼내려했으나 [illegible] 클라크씨의 이번수술은 인공심장이식수술이후 3번째 수술이다.

人事異動

保社部 ▲국립木浦결핵병원장(직무대리) 丁容鎭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교관 金熙鮮 ▲국립보건원교학과장 任仁 [illegible]

韓國土地開發公社 [illegible]

철도청 [illegible]

韓一銀行 [illegible]

本社來訪 [illegible]

고침 [illegible]

記者의 눈
國政연설과 對話

[illegible]

政局往來

[illegible]

"국민의 차디찬 눈초리는 民意를 적극 대변하라는 채찍질."

[illegible]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Beginners sound great in minutes.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한국인이 경영하는ㅁ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중국 식당
"단체손님 환영"
■ Free 주차장
■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 주문시 배달합니다.
■ 매일(년중무휴)
오전 11:30~새벽 1:00까지
538 St. Clair W. (세인·클레어×베다스트)
656-0456
유 창 준 654-6609

도매상 Cash & Carry
DOMINION SMALLWARES
확장이전공고
한인교포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저희 도매상은 아래의 장소로 확장이전하게 됨에 인사드립니다.
배전의 성원을 바라오며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요.
대표 Sol Dennis 쎄일즈·매니저 김근래 올림.
새주소 : 47A Orfus Rd.
(도매상 Loeb근처).
☎ : 789-7214~5
(종전과 같음)
이전날자 : 1983년1월4일(화)

Grant Brown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校服자율화 示範실시후
中高 여교사 엉뚱한「봉변」
학생으로 誤認… 곳곳서 해프닝

3월 새학기부터 완전자율화가될「교복」문제로 골치를 썩이는것은 학부모나학교측뿐만이 아니다. 중·고교의 여교사들도 지금「고민」에 빠져있다.

특히 20대 미혼여교사들이 당하게될 이「고민」이란 학생들이 기성인처럼 옷을입게 됨에따라 교사와 학생들구별하기 어렵다는데서 생긴것.

서울의 경우 지난해10월부터 20여개중·고교에서 교복자율화를 시범실시한결과 그「고민」이 여실히 드러나버려 다른학교의 여교사들까지 들먹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복이 있을때만해도 교사와 학생이 한눈에 구별돼 문제가 생길수가 없었으나 자율화이후 학교안팎에서 여교사들이 학생으로 오인받아 야단을 맞거나 야유를 당하는등 수난이 심심치 않게 생긴다.

심한경우 학생들과함께 여교사가 운전사로부터 모욕을 당하는가하면 일반시민들로부터『요즘 여학생들은 하이힐도 신고다닌다』는 등의 힐책을 받기도한다.

또 일부여고생들은 여선생이 새옷을입고 강단에서면『얼마짜리냐』『어데서샀느냐』는등의 질문공세를 펴는등「패션라이벌」로보는풍조까지도 없지않다.

요즘 여고생들의 체격이 젊은 여선생을 능가하는가하면 새학기부터 여고생들을 대상으로한 기성복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올 예상이어서 젊은 여교사의 수난시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일부여학교선생들은 한결같이『우리가 제복을 해입든지 돈이들더라도 정장을해야겠다』며 나름대로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지난해 11월 수학여행을갔던 서울S여고 成모교사(27·여)는 청바지에 T셔츠, 점퍼차림으로 관광버스에 탔다가 운전사로부터 망신을당했다.

지정된 교사석에 앉으려는 순간 운전사가『학생이 왜선생자리에앉느냐』는 핀잔을 주었던것.

成교사는 그후부터 바지를 입지않고있다.

이학교 田모교사(26)는 南大門시장에서 5천원주고 산 노란체크무늬의 T셔츠를 입고 학교에갔다가 똑같은옷을입은 한학생으로부터『그옷어디서 얼마주고샀어요』라는 질문을받았다.

아무생각없이 사실대로대답했더니『어머, 우리동네에선 3천5백원이면 사는데…』라며서 웃더라는것.

P교사는 지난81년 동네에서 1만5천원주고산 반코트를 요즘은 입고다니지 않는다.

이유를 묻자『학생들이 싼것이라고 놀려댈까봐』라고 설명하더라는 것.

교사만도 1백여명이 훨씬넘는 C여고 朴모교사(29·여)는 교사전용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얼굴을모르는 학생들로부터『학생이 왜 저길 들어가려다』는 핀잔을 듣기도했다. 학교에 찾아오는 내방객들도 교사와 학생들 구별하지못해 반말지꺼리를 하는 수도있다고말했다.

서울D여고 1학년 李모교사(24·여)는 퇴근길에 학생들과 함께 교문을 나서면 뒤에서 오던 시민들이『요즘여학생들이 굽높은 구두까지신고다니느냐』하면서 혀를차는 소리를 여러번 들었다고말했다.

이같은 해프닝이 자주일어나자 여교사들은 패션에대해 전보다는 훨씬신경을쓰고있다.

J여상 金모교사(27·여)는『학생들에게는 허용되지않는 퍼머머리를 하거나 정장을 차려입고 전보다 짙게화장한 여교사들이 늘고있다』고전하고『액세서리도 모조품에서 진품을 그것도 전보다 요란하게 착용하기도한다』고 말했다.

또 비교적값이싼 南大門시장, 東大門시장, 동평화시장 또는 동네양품점을 자주이용하던 여교사들이 고급백화점이나 의상실에서 정장을맞춰입는경우가 많아졌고 가발도 전보다 비싼것을 구입하는경향도있다.

이「수난」으로 여교사들의 경제적부담이 커진것은물론이다.

머리도 커트를하면 3천~5천원인데 퍼머를 하기때문에 1만~3만원이 들기도하고 안하던 화장을하기위해 아이섀도 1개만 사도4천~5천원을지불해야한다.

H여고 李모교사(40·여)는『전에는 값싸고 수수하게 차려입어도 별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더욱신경을써야할것』이라면서『그러나 특권의식이나 사치성때문은 절대로 아니다』라고강조한다.

李교사는 특히『학생들이 교사간의 패션감각의 차이를 존경의척도로 삼지않도록 지도해야할것』이라고 말하고 학생들에 알맞는 패션의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83년현재 전국 중·고교교사는 11만9천3백38명가운데 26·9%인 3만2천78명이 여교사이며 서울의경우 전체 8천1백70명의 여교사가운데 30세미만의 젊은여교사가 57%인 4천6백60명이나된다.

또 서울의경우 여중·고교가 모두 1백58개교(여중90·여고68)이며 남녀공학이 61개교(중학42·고교19)이다. 【金宗來기자】

사치성校服 없게
文敎部지시, 私立中육성계획도

문교부는 19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때에 대비해 사립중학교를 4개유형으로 나누어 정비육성하고, 서울·釜山등 6개도시에 영재교육을위한 과학고교를 84년에 개설하며 유치원의 2부제 운영을 올해부터 허용키로 했다.

문교부는 또 아시안게임및 서울올림픽에 대비, 현재 49·5%에 그친 초·중·고교 예체능 전담교사제를 85년말까지 전국에 확대하고 중·고교 대상으로 교육방송을통해 영어교육을 실시, 연4회 듣기 평가를 하기로했다.

문교부는 이날 금년도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각시도교위 학무국장·관리국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시달했는데 사립중학교에 대한 4개유형분류는 ▲자립형▲보조형▲공립전환형▲관리형등이다.

문교부는 이밖에 교복자율화의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이 사치성·유행성복장을 착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보충수업을 명분으로한 과외수업과 입시를 겨냥한 모의고사의 실시를 엄금한다고 밝혔다.

大寒추위 週末까지
全國이 영하10도안팎…한때 눈내려

영하10도안팎의 대한(大寒)추위가 주말까지 계속될것같다.

중앙기상대는 대한(21일)을 하루앞둔 20일 전국의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서울이 최저영하10도, 淸州 영하12도, 春川 영하13도, 光州·釜山 영하5도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서울·강원·충청지방은 낮최고온도조차 영하권을 벗어나지않겠다고 예보했다.

또21일에는 한층추워져 서울이 최저영하10도, 春川영하14도, 光州영하6도가 되겠으며 날씨는 가끔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눈이 내린다는 것이다.

중앙기상대는 대한추위가 몽고에 중심을둔 대륙성고기압의 영향때문이라고 밝히고 일요일인 23일까지 계속됐다가 한때 눈을뿌린후 영하7~8도내외의 예년추위를 되찾겠다고 내다봤다.

"5년지난 보통預金 못찾는다"
大法院판결 16년만의 殘額청구 敗訴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등 수시로 찾을수있는 예금이라도 은행과 마지막 거래가 있은날로부터 5년이 지난뒤에는 예금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잔액을 찾을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19일 朴今連씨(45·여·부산東萊區福泉洞426의1)가 한국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저축예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한국상업은행은 상사법인으로서 朴씨와 맺은 저축예금계약은 상행위이기 때문에 저축예금채권도 상사채권으로서 상법상 채권소멸시효 5년에해당하므로 한국상업은행은 마지막거래가 있은뒤 이미 16년이 지난 朴씨의 예금잔액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고 밝혔던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朴씨는 지난 64년11월한국상업은행 北釜山지점과 저축예금거래를 해오다 65년2월 마지막으로 20만원을찾고 1백18만원을 남긴것을 끝으로 거래가 중단됐는데 그후16년만인 80년12월 예금잔액을찾으려 했으나 은행측이『원장등근거기록이 없는데다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냈었다.

이사건 1심과2심은 다같이 예금도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데는 견해를 같이했지만 1심인 서울민사지법은『소멸시효 5년의 기산점은 예금거래가 중단된때에 관계없이 예금주가 예금인출을 요구한때로부터 봐야한다』고 밝혀, 사실상 언제든지 예금을내주어야한다는 취지의판결을했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채권소멸시효는 은행이 최종적으로 예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할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이 사건의 경우 65년2월최종적으로 20만원이 인출된것은 은행측이 이때 채무가있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고朴씨의채권소멸시효기간은 65년2월부터 시작돼 5년뒤에 끝난 것이다』고 밝혔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러한 서울고법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통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예금을 찾아갈수있다」고 생각할뿐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모르는 일반예금주들에겐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것같다.

다만 현재 은행의 관행으로는 예금유치와 공신력확보를 위해 소멸시효 5년이지났더라도 은행에 보관된 원장에 근거가 남아있으면 예금을 내주고 있지만 은행원장도 보존기간이 10년이고 그후에는 폐기되기 때문에 예금주들로서는 소멸시효에 신경을쓰지 않을수 없게됐다.

◇엇갈린 表情들 전기대 합격자가 예정(21일)보다 앞당겨 발표됐다.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계열별 모집에서 과별모집으로 바뀐데다가 심한 눈치작전으로 경쟁률이 의외로 높은학과 많아 발표장으로 가는 수험생들의 표정이 그어느해보다도 굳어져있는 듯 보였다. 【19일상오 Y大에서】

家族 셋살해 家長자살
전남莞島 척추디스크 悲觀해온 40代

【光州】척추디스크병 앓아온 40대가장이 신병을 비관, 흉기로 부인과 남매등 3명을 살해하고 자신은 극약을 먹고 자살한 사건이 전남莞島에서 발생했다.

19일 상오7시께 전남莞島郡所安面孟仙里67의7 李良男씨(44)집 안방에서 李씨의 부인 申南信여인(45)과 장남 允一군(7) 장녀 樹桂양(5)등 3명이 흉기로 머리와 가슴등을 찔려 숨져있는 것을 같은 마을 金泰禮여인(52)이 발견, 경찰에신고했다.

또 李씨는 집뒤언덕아래서 농약을 마시고 숨져있는것을 마을주민들이 발견했다.

한마을에사는 장모 崔甲珍여인(68)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18일하오6시께 함께저녁을 먹었는데 그자리에서 지병인 척추디스크병을 비관하면서 가족모두가 죽어버려야겠다면서 자기집으로 돌아갔다는것.

李씨는 4년전부터 척추디스크를 앓아왔으나 생활이 어려워 치료를받지못해 비관해온것으로 알려졌다. 【聯合】

前期大합격자 發表
어제부터…成績은 公開하지 않기로

83학년도의 전기대학 합격자발표가 예정을 앞당겨 각 대학별로 실시되고있다.

지난17일 慶尙大를 시작으로 19일에는 延世大·西江大·成大·外大·漢大·東大·檀國大·建國大·國民大등이 합격자를 발표했고 21일에는 서울大·高麗大·慶熙大가 각각발표한다.

한편 문교부는 이날합격자 발표는 수험번호와 이름으로만 국한시켜 합격자들의 성적이 공개되지 않도록하고 커트라인과 합격사정을 위해 각 대학에배포한 학력고사 성적자료(컴퓨터입력테이프포함)가 외부에 새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각대학에 긴급지시했다.

首席은 거의女學生
釜山도 合格者발표

【釜山】부산시내 전기대학의 수석합격은 거의 여학생이 휩쓸었다.

19일까지 83학년도 신입생 합격자가 발표된 7개대학가운데 釜山大·東亞大등 2개종합대학을 비롯 釜山敎大·釜山産業大, 釜山水大, 釜大등 6개대학의 수석을 여학생이 차지하고 남학생이 수석을 차지한 학교는 仁濟醫大한곳뿐.

특히 국립釜山大의경우 여학생이 전체수석을 차지한것외에 11개 단과대학중 8개대학도 여학생이수석을차지 실력을 과시했다. 【聯合】

全斗煥대통령 2男 在庸군 延大에合格

全斗煥대통령의 2남 在庸군(18·서울漢城高卒)이 延世大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다. 【聯合】

선박4千여 발묶여
全南, 폭풍주의보로

【木浦·麗水】19일상오 11시를 기해 서해남부와 남해

"賃金, 2월말까지 自律인상"
노동부 蔚山사무소

【蔚山】노동부蔚山지방사무소는 19일 蔚山·梁山·溫山공단에 있는 1백49개업체에 대해 올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한자리 숫자에 구애받지말고 2월말까지 자율적으로 인상토록 촉구했다.

蔚山지방사무소는 이날상오 蔚山공단의 現代중공업등 74개업체와 溫山공단의 한국광업제련소등 24개업체, 梁山공단의 金星알프스등 51개업체 1백49개업체의 사용주와 노조대표자가 참석한 노·사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임금인상지침을 통보했다.

이날 모임에서 蔚山지방사무소는 올해 임금 인상은▲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하고▲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을 감안해 타결하고▲전근로자에대한 정률인상대신 저임금층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선할것을 당부했다. 【聯合】

競賣싸고 談合 특정인에 落札
前서울地法 경매2계장등 拘束

서울지검수사과는 19일 전서울민사지법 경매2계장 李鉉宅씨(45)와 변호사 사무실사무장 朴鳳春씨(54)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및변호사법위반혐의로구속하고 李月今씨(69·여)를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李씨는 지난해5월 한국상업은행이 경매를신청한 서울鍾路區苑南洞 한국천연색현상소건물(싯가10억원)을 李月今씨가 경매받을 수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朴씨를통해 5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혐의다.

李씨는 朴씨의 부탁을 받고 응찰자 모두에게 경매기일 통지서를 보내지않고 李月今씨등 3명에게만 기일을 통지해 李月今씨가 낙찰받을수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어떤「중매장이」
本業 제쳐놓은 漢藥業士 孫順石씨
不遇 젊은이들 104쌍 짝지워줘

자기선전에 능한사람이 실속이없는 경우가 많다. 본란에 자원한 孫順石씨(43·사진·仁川市南區關石洞122)도 그런부류의 인사가 아닌가 하는 위구심을 받은것이 사실이었다. 기자가 그의 집을 찾아 갔을때「成濟漢藥房」과「합동결혼상담및 접수처」란 간판이 나란히 걸려있어 내심『그러면 그렇지 약장수구나』하고 생각하며 문을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분명 孫씨는 한약재를 파는 한약업사인데 그의 가게안엔 녹용, 감초, 숙지황같은 약재는 눈을 비벼도 볼수가없었고 사방벽면이 온통 합동결혼식사진으로 꽉차 있는게 아닌가. 물론 사진속엔 그의 얼굴을 찾아볼수 없었다.

孫씨는 중매장이었다. 그렇다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 짝을 찾기가 어려운 전과자등 불우한 젊은이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주는 인생복덕방주인이었다. 지난 10여년간 전과자 26쌍을 비롯 1백4쌍을 맺어, 합동결혼식을 주선해 주었다니「대기록」이다.

가난했던 사람이 성장해 가난한 사람을 보는 눈은 두갈래. 동정과 멸시가 아닐는지…. 고향利川에서 과자점원등 가난의 고통을 피부로 느꼈던 孫씨는 가난하거나 역경에 처한 젊은이를 보면 동정하고 이를 곧 행동에 옮기지 않고는 못배기는 사람이라한다.

12쌍의 중상이용사의 합동결혼식을 주선해주고 6명의 욕창환자를 한방치료로 고쳐주면서 그는 조건없이 남을 돕는 희열의 의미를 체득했다고 철학적인 발언도한다. 이때부터 孫씨는 약재파는 일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다고했다.

그는 진짜 약방의 감초처럼 지역사회 봉사직책에 안끼는데가 없지만 법무부仁川갱생보호협회총무 이사직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10여년간 전과자의 후견인노릇을 해온 그에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합동결혼식으로 가정을 꾸민 1백4쌍중 아직 탈선자가 하나도 없읍니다』고 말하는 그의 어조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기쁨이 가득하다.

기자는 그의맹랑한 자원 편지가 장사속과는 거리가 멀고 자신의 봉사정신을 스스로 다짐해보고 싶어했다는 순수한 감정을 확인함과 동시에 반드시 돈만이 불우이웃을 도울수있는 방법은 아닌것을 새삼깨달았다. 역시 인간에게 중요한것은「마음」이다. 【崔成基기자】

失戀처녀 焚身자살

【寧越】18일밤 12시께 寧越郡寧越邑 永興8里7반 위홍기씨(65)집 안마당에서 위씨의 외동딸 혜자양(25)이 실연을 비관, 온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했다. 【聯合】

고국의 향수가 흘러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가요,문학,영화,진실
454 BLOOR ST. W.
536-1692

주택,토지,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HoneyHome BakeShop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각종 파티용
샌드위치 TRAY
주문 받습니다.
☎: 961-9780 MRS. 장
☎: 536-1908(R)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마쵸레스토랑
신장개업
□주류일체 취급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넓은 파킹장 교통 편리
Victoria Pk.
STEELS
GORDON BAKER RD
HWY 404
FINCH
PHARMACY
□영업시간: 오후4시~새벽1시
□주 소: 4035 Gordon Baker Rd. (스카브로)
☎: 498-1300
이해창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596-7311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現代 2陣 신들린 슈팅

농구選手權 猛獸처럼 國民大 몰아붙여… 3勝

117-84

現代는 제37회 전국남녀종합농구선수권대회 5일째 남자부리그에서 후반 후보선수들의 활약으로 國民大를 이번대회 최다득점인 117—84로 완파, 3연승을 기록했다. 대학의 강호 延世大도産業銀行을 체력으로 밀어붙여 92—70으로 완승, 4연승을기록했다. 4승의 延世大는 20일 열리는 現代—韓國銀行의 대전서 現代가 이길경우 現代와 패권을 겨루게된다.

이미 8강결승 토너먼트진출이 확정된 여자부 B조의 太平洋化學은 朴賞淑 權明嬉등 장신을 활용, 단신의 第一銀行을 82—57로 제압, 2승으로 B조수위를차지했다.

여자부 A조서는 韓國化粧品이 外換銀行을 76—67로물리쳤다.

三星 雄飛 海龍등 남자실업강호들이 부상선수 때문에 대거 불참한 남자부 리그는 실업정상 現代와 대학정상延世大와의 대결로 압축돼가고 있다.

延世大는 韓國銀行 企業銀行 産業銀行등 금융팀들을연파, 現代에 한발앞서 우승문턱에 먼저 들어섰다.

延世大는 이날 초반부터 맹렬한 속공을펴고 金賢俊의 슛과 高明和 趙明富등의 분투로 産業銀行을 전반초부터 압도했다.

産業銀行은 선수를 선발하지못한데다 노장선수들의 힘이 달려 추격에 실패, 전반서 49—29로 크게 뒤졌다.

延世大는 후반서 俞載學이 게임을 잘 이끌어 92—70으로 대승했다.

現代는 國民大와의 경기서 辛善宇 朴守教 李忠熙등 주전을 모두 기용, 전반10분께 점차를 크게 벌였고 후반들어 점차가 더욱 벌어지자 現代는 주전을 모두 2진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코트에서 뛸수있는 기회를 오랜만에 맞은 후보선수들은 용기백배,주전보다도 더 눈부시게 활약, 國民大의 수비를 자유자재로 교란했다.

國民大는 센터 金星旭이 장신숲에 가린데다 金仁玉 金明俊의 슛도 페이스를 찾지못해 대패했다.

◇제5일전적

▲남자부리그

연세대학 92 (43—41, 49—29) 70 산업은행
(4승) (3패)

현대 117 (67—44, 50—40) 84 국민대학
(3승) (4패)

▲여자B조

태평양화학 82 (40—27, 42—30) 57 제일은행

▲등순위=①태평양화학2승 ②보증기금1승1패 ③제일은행2패

▲동A조

한국화장품 76 (30—36, 46—31) 67 외환은행

▲등순위=①한국화장품2승 ②외환은행1승1패 ③서울신탁은2패

◇농구도 배구하듯 여자부B조 太平洋化學과 第一銀行경기서 第一銀의 尹奉姬(9번)가 太平洋수비를뚫고 쓰러지며 볼을 잡고있다. 太平洋이 82—57로 대승, B조 1위가 됐다.

타릭(印尼) 꺾고 세계雄飛

새벽을 뛰고 한밤을 달리면서 백핸드·드라이브 갈고 닦는다

테니스 金春浩

『키가 작은대신 하느님은 제게 빠른 발과 투지를 주셨어요. 꾸준한 연습만이 제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1m66의 단신으로 뉴델리 아시안게임 코트를 휘저었던 金春浩(22·現代)。 남자복식 혼합복식 2관왕에다가 남자단식 은메달리스트인 金春浩는 「작은거인」「코트의 마술사」라는 애칭이피나는 훈련의 결실임을 강조한다.

요즘도 새벽 6시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뒤 한강고수부지 어둠속을 달리는 金春浩는 새해의 설계로 가슴이벅차다.

『나의 목표는 프로진출이다. 당장은 병역문제때문에 어렵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세계프로무대에 뛰어들어 나의 기량과 투지를 마음껏 불살라 보겠다.』(金은 병역면제를 받았으나 5년간 해외진출은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우선 올해는 아시아의 정상을 다시 탈환하고 첫 출범한 소속팀 現代의 우승에 기여를 하겠다』

金春浩의 머리속에는 하루 24시간 지워지지 않는 2개의 얼굴이 있다.

아시아의 라이벌인 유스베조·타릭(인도네시아)과 국내의 최강적 全英大(대우)이다.

『아시안게임서 돌아온후 타릭의 모습을 잠시도 잊지 못했읍니다. 하루 3종목까지 뛰다보니 마지막 단식결승전서는 완전 탈진상태였어요. 올해안에 꼭 복수할 기회를 가져야 할텐데…』

81년 아시아선수권대회우승으로 아시아의왕자를 일승했던 金春浩는 타릭에 당한連敗에 몹시자존심이상한눈치이다.

79년 처음 국가대표로 출전한 데이비스컵 2회전서는 타릭을 3—0으로 가볍게일축했으나 81년 데이비스컵예선서는 2—3으로 역전패했고 아시안게임 결승서도 최악의 컨디션으로 만나 2—1로분패했다.

올해에도 말레이지아의 네이션즈컵(5월)、유니버시아드대회(7월)、서울아시아선수권(10월)등 굵직한 국제대회에 바삐奔아다녀야할 金春浩는 이제 국내에서도 큰 짐을 지게됐다.

明知大를 졸업하고 現代에창단멤버로 입단하면서 現代—大宇 라이벌전의 기수가 되었다.

『또 英大와 만나게 됐군요. 4년간 함께 대표선수를 해 서로를 너무 잘알아 힘든 상대입니다. 英大가 1m83의 장신이라 애를 먹었지만 승산은 제게 있읍니다』

金春浩는 새벽의 개인훈련 후 상오에는 체육고등학교에서 스피드와 유연성을 기르는 전문훈련을 받고 있다. 4백m트랙을 달린 후 계단 오르내리기로 지구력을 키우는 한편 허리와 발목의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짧은 거리, 왕복달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1백m 달리기는 12초8로 테니스 선수중에는 빠른편이다. 체력은 어느 외국 선수에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강하다.

金春浩는 특히 국제대회에서 강한 선수로 정평이 나있다.

『남들은 외국선수와 붙으면 주눅이 들고 50%의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는것 같은데 나는 더욱 신이나고 힘이 생겨요』

남보다 센 배짱때문이다. 金春浩는새해에는 외국선수들과 대적할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위해서브 앤드 대시와 발리등 공격형 기술을 집중적으로 익히겠다고 말한다.

포핸드 톱스핀과 백슬라이스는 가장 안정된 편이지만 보다 적극적 타법인 백핸드·드라이브를 주무기로 익히기 위해 하루 2~3시간을 볼·머신과 씨름하고 있다.

『백핸드드라이브가 제것이 되는 날에는 누가 덤벼도 자신이 있읍니다』

그의 연습량은 남보다 훨씬 많다. 남이 보는 앞에서 연습하기를 싫어하는 성격때문에 요즘도 동료들이 잠든 한밤중에 살짝 나가 달리기와 스윙연습에 몰두한다.

『金春浩는 현국가대표중 가장 유망한 선수로 평가되고 있다. 꾸준한 노력형인데다 몸이 유연해 부상없이 항상 제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고 金文一 현대팀감독은 평한다. 【兪奭根기자】

◇金春浩 신상명세

본적	전북 남원시 조산동10
주소	〃
생년월일	1960년 9월 2일생
가족관계	金福東씨(53·농업)의 3남 2녀중 장남
학력	全州高·明知大 졸업예정
소속	現代
신장	1m66
체중	63kg
취미	음악

내품에 83년을… ⑥

LA올림픽 陸上출전 자격 張在根(200m) 金鍾鎰(멀리뛰기)뿐

국제聯盟、基準기록 강화

여1백m 朴美善 남8백m 金福柱 가능성

◇張在根

◇金鍾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의 육상출전조건을 크게 향상, 일정수준 이상의 선수들에게만 출전을 허용할 것이라고 18일 발표하여 국내육상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IAAF는 육상에서 1개종목이상에 참가를 원하는국가는 83년7월1일부터 84년7월15일 사이에 소정의 수준에 이르는 선수들만을 선발, 84년7월23일까지 로스앤젤레스올림픽조직위에 신청,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은 남자 1백m, 2백m와 멀리뛰기등 3개종목, 여자의 투포환 1개종목만이 올림픽기준을 넘어 한국육상의 아득한 현실을 실감케했다.

남자1백m 한국최고기록(10초34)보유자인 徐末九는 지난연말 현역에서 은퇴했고 張在根의 기록(10초72)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있다.

여자투포환 한국최고기록(16m96cm) 보유선수는 은퇴한 白玉子.

LA올림픽에는 張在根(2백m)과 金鍾鎰(멀리뛰기) 2명만이 출전자격을 보유하고있다.

남녀마라톤에는 기준기록없이 각국이 2명의 선수를 자유로 출전시킬수 있다.

한국은 앞으로 1년6개월 남은 LA올림픽에 여자1백m 기준기록에 0.02초미달인 朴美善(11초56)과 牟明姬, 남자8백m에서 0.55초가 모자란 金福柱(1분47초55)등의 기준기록돌파에 기대를 걸고있다.

◇LA올림픽 陸上기준기록

종목	LA 기준기록	한국 최고기록	
남자			
1백m	10초44	★10초34	(徐末九)
2백m	20초94	★20초89	(張在根)
4백m	46초34	47초60	(具本七)
8백m	1분47초F	1분47초55	(金福柱)
1천5백m	3분39초F	3분52초98	(〃)
5천m	13분35초F	13분57초33	(朴元根)
1만m	28분25초F	29분38초17	(〃)
1백10m허들	14초04	14초64	(宋演植)
4백m허들	50초54	53초30	(吳承殷)
3천m장애물	8분30초F	9분03초29	(宋俊圭)
높이뛰기	2m22cm	2m16cm	(金容基)
멀리뛰기	7m80cm	★7m98cm	(金鍾鎰)
3단뛰기	16m45cm	15m86cm	(金元權)
봉고도	5m35cm	4m72cm	(洪幹杓)
투포환	19m40cm	15m34cm	(韓敏洙)
투원반	61m	51m80cm	(洪淳模)
투창	82m	74m48cm	(梁殷寧)
투해머	71m	63m88cm	(盧京烈)
10종경기	7천6백점	6천8백48점	(李採洪)
여자			
1백m	11초54	11초56	(朴美善)
2백m	23초64	24초49	(牟明姬)
4백m	52초74	56초24	(金慶淑)
8백m	2분02초F	2분10초31	(金順花)
1천5백m	4분09초F	4분25초91	(〃)
3천m	9분05초F	9분37초03	(〃)
1백m허들	13초64	14초33	(田玉金)
4백m허들	58초64	61초75	(田京美)
높이뛰기	1m86cm	1m81cm	(金希宣)
멀리뛰기	6m45cm	6m35cm	(金美淑)
투포환	16m80cm	★16m96cm	(白玉子)
투창	56m	49m48cm	(金福順)
7종경기	5천7백점	4천9백43점	(池貞美)

(★표는 통과기록)

레슬링專用경기장 新葛에 세워

신갈에 레슬링전용 경기장이 세워진다.

李健熙대한레슬링협회장은 88서울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에 대비, 지난5일 京畿道신갈 三星전자공장자리에 15억여원의 공비를들여 연건평 1천1백73평(지하1층, 지상2층)의 레슬링 전용경기장을 착공, 3월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전용체육관지하실에는 웨이트트레이닝장과 라커룸·사우나·마사지실등이 들어서며 1층에는 연습장과 식당, 2층에는 코치실과 외국인전용코치실, 50명수용의 합숙소등이 들어서게된다.

李健熙회장 유임 레슬링協會

대한레슬링협회는 19일상오 東邦生命빌딩 회의실에서 82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李健熙회장(三星그룹부회장)을 유임시키는등 새집행부 구성을 회장에일임했다.

이날 총회는 오는10월의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소련) 파견등 금년도 사업을 확정짓고 4억3천5백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illegible]·2301

張吉山 <1644>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04)

마루가 반들거리도록 걸레질하고, 놋그릇을 수세미로 닦아내고, 설겆일하고, 하얗게 빤 빨래를 포구의 강언덕에 널어 말리고, 여문이를 젖먹이고 재우고 어르고, 그리고 등잔을 돋우고 창가에 앉아 바느질하고…이 모든 나날들이 참으로 고즈넉하였다. 바람소리도 천둥 번개도 없이 아득하게 먼데서들리는 빨래 방망이 소리며 늦도록 여문이를 위하여 부르는 자장 노래며 묘옥이 자신의 숨소리조차 들리지않는것만 같았다. 그것은 밤에 잠이 까무룩하게 들기 직전에 얇은 눈까풀 안쪽으로 춤추며 흘러가는 것같기도하고 너울대는 것같기도한, 소리는 빠진 동작들의 고즈넉한 연결이었다.

입가에는 침묵의 미소 비슷한것이 어렸으나 그럴듯한 감정의 실마리도 집어낼 도리가없다. 모든 것은 저절로 절제되었거나 생략되어 있다. 사부친 골짝을 지나면 빈터로 나오게되는 것일까. 어찌하여 이렇게 막막한 빈터에는 안락하고 따사한햇볕이 가득하고 모든 움직임은 살풀이의 무명수건처럼 고즈넉하다. 꽃가지 따위가 여울기슭에서 물결에 부대껴 쉬운 부분은 이것 저것 하나둘씩 씻겨가고 어려운 부분만 꼭 그만큼 남은것같구나. 이제 묘옥에게는 남에게 표나는 구석이 없어졌다. 그러지는 여문이에게 와 똑같은 정을가지고 그 아비인 이경순을 바라보고 말하고 웃었다. 묘옥은 이당에 죽어 남편곁에 묻히기가 원이고 넋으로나마 히 않아 여문이의 제사를 받게 되기가 원이었다. 사는것이 슬픈것도 괴로운것도 아닌 그저 수수한 꿈이 아니랴. 신당에 올린 종이 연꽃처럼 한장 두장이 겹치고 모여 정혼이 되면 시들지도 이즈러질 것도 없다. 그러나 어쩐지 묘옥은 이러한 정이 경순에게는 죄송한듯 여겨졌다. 묘옥이 여주 강변에서 죽은 그의 아내를 위하여 빠짐없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세상 도리에는 맞는지언정 재인촌을 떠나던 때의 그러한 열기와는 다른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경순이 없이 어찌 길산을 알게 되었으랴. 재인촌에서의 길산은 불완전하고 희끄무레하여 형체 뿐이었고, 경순을 통해서 기억들은 차츰 또렷하게 완성되었던 것이다. 여문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묘옥은 발을 재게 놀려 방으로 들어가 칭얼대는 여문이의 입에 젖을 물리고 비스듬히 눕는다. 밖에서는 장쇠와 남편이 점심을 먹으면서 주고 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동이 섰이 어엿청 군졸이 되었답니다』

『허, 그참 재주도 좋군。 누가 그러더냐?』

『지난번에 죽집이 아저씨가 그런든데요』

『전생이가 이거 또 늦는구나』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빗허러 길에 나서겠어요』

『돌아올 날짜가 지났어。 무슨일이 생긴게 아닌가』

밖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 집은 잠시 폐했나。 야, 장쇠야。』

하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고 비를맞아 흠뻑 젖은 이가 건너편 객점의 청에 들어선것이 보였다. 패랭이 테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음, 홍서방 왔나?』

이경순이 수저를 놓고 일어났고, 장쇠는 아예 밥먹기를 치우고 신을 꿰었다. 홍천수가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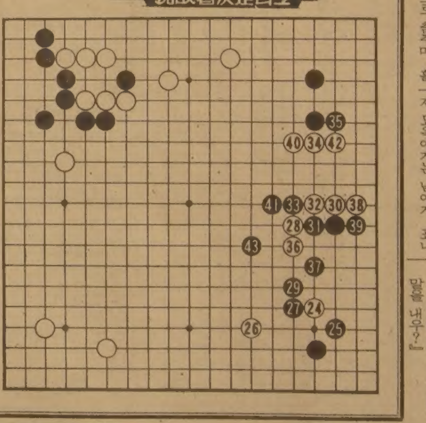
『포구에 배 왔다。 짐부릴 말이나 내어라』

『무슨 태산같은 짐이라구 말을 내우?』

第14期 名人战 挑战者決定리그

第8局 第4譜 24~43 (각5시간·덤5집반)

白 (6段) 徐能旭〈1敗〉
黑 (7段) 徐奉洙〈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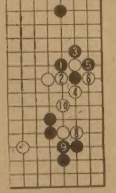


이들은 보통「大徐·小徐」라 불리고있다. 본관이 달라서 항렬은 따지지못하고 5살위인 徐7단이 현대적을 받기나와 게다가 커리어면에서도 대선배이다.

徐7단은 입단전 고등학교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했으며 최근까지 曺薰鉉9단과 천하를 양분해왔다. 이에대하여 徐6단은 무한한장래성을 인정받을뿐이지 아직정상에는 미치지 못하고있다.

이런것이 徐7단과의 대국에 정신적영향을 짐스럽게 주는것도 무리는 아닌듯 이바둑도 전보에서 白24이하 黑29까지 異常行馬로 白들이 제각기 분리되어 문제가 심상치 않았다. 이때문인지 白30에 대해서도 黑은 31、33등 폭력과도같은 강수를 들고나오게되었다.

暴力같은 強手



黑31로 32자리를 젖히는 보통수단은 참고도처럼 白10까지 (도중 黑7이음) 흩어졌던 白이 쉽게수습된다.

趙8단『黑37로는 38자리를 젖히고 싶지만 어차피 37을 두어야하므로 일찌감치 지켜두는것이 정수다』

이곳전투는 白38호착 이하黑43까지 일단락되었지만 결과는 黑이 간명한국세、그렇다고 白이 열세에 놓인것은아니고 이제부터의 바둑이다. 【一凡】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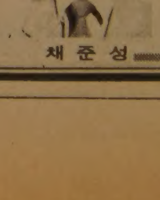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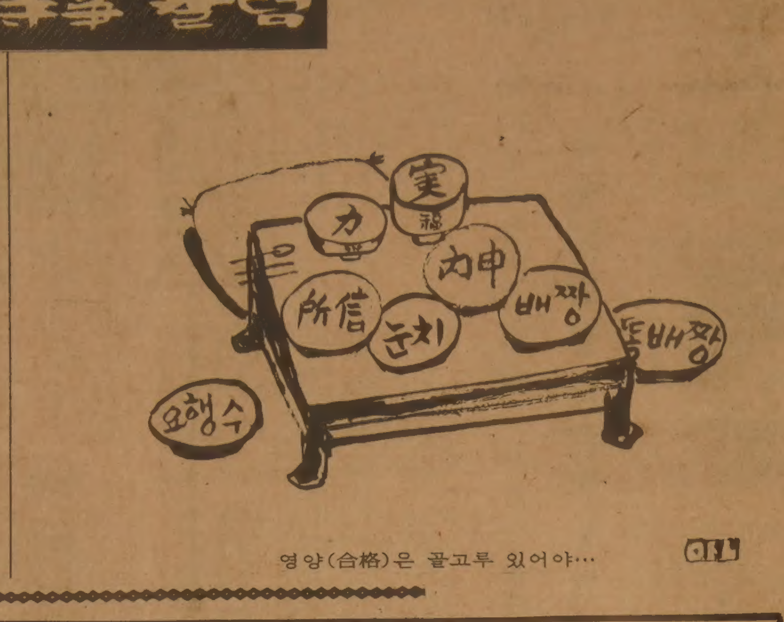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블루어 하드웨어
Benjamin Moore PAINTS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칼럼

對共戰線 적극參與?!…



영양(合格)은 골고루 있어야…

事件기자수첩

교통사고는 신정 연휴에도 쉬지 않았다. 서울에서만 7명이 숨지고 1백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부분의 자가용 승용차가 서울을 빠져나간 한산한 연휴의 거리에서 조차 「달리는 흉기」들은 사고 뭉치였음을 새삼 깨닫게 한 것이다. 교통사고만 없었다면 신정연휴는 그리 큰 사건·사고가없었던 매우 조용한 元旦이었을 것이다. 全北지방에선 어린이 3명이 한꺼번에 트럭에 치여 어린생명을 잃었다는 소식까지 메모된 이번주의 「기자 수첩」은, 다시 한번 차량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넘어간다.

택시運轉士가 우유 사 먹다 제車에 轢死

신문에 안난 現場

조용한 新正연휴

▲교통사고만 없었다면 조용한 신정연휴였다. 서울의 명동·무교동·종로등 번화가와 동대문·남대문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가·백화점등이 문을 닫은 가운데 거리는 한산한 모습이였다.

그러나 어린이 대공원과 고궁·개봉극장·근교의 등산로 등에는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몰려들었고 국내 유명관광지와 온천등지에는 연휴를 즐기려는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크게 붐비는 바람에 기분을 잡치기도 했다.

古宮·극장가붐벼

종로와 을지로·충무로일대 개봉극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을 빚자 경찰과 극장종업원들이 질서를 잡느라 애를 먹기도.

고궁과 어린이대공원은 평소보다 4~5배가량의 많은 인파가 몰렸다.

창경원은 3일동안에 2만3천여명이, 어린이대공원에는 3만7천여명이 몰려 1일평균 입장객이 평소보다 4~5배쯤 늘어났는데 입장객들 대부분은 평소 함께 나들이를 못했던 가족단위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서울구로구가리봉동 한국수출산업공단의 2백30개 입주업체는 대부분 전세버스를 마련, 귀향종업원 8천8백여명을 수송했다.

신정연휴기간동안 대부분의 입주업체들은 휴무에 들어갔는데도 귀향종업원이 많지않은것은 구정때로 귀성을 미루는 종업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연휴기간중의 사건·사고도 예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 비교적 조용한 새해를 맞았다.

서울의 경우 3일 동안 화재21건이 발생,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교통사고는 1일에 49건, 2일에 51건, 3일에 55건등 모두 1백55건이 발생, 7명이 사망하고 1백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밖에 시경산하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절도·폭력등 일반사건도 예년보다는 훨씬 적었다.

또 지방에서도 대형사고없이 대체로 조용하게 새해를 맞았다.

釜山지방에서는 4건의 해난사고가 발생, 예인선 1척이 침몰하고 선원 4명이 실종됐으며 절도등 각종사범 46명이 구속됐다.

경북지방에서는 시외버스가 굴러 승객1명이 숨지고 73명이 중경상을 입는등 34건의 교통사고와 1건의 해난사고가 발생, 6명이 숨지고 1백2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전북지방에서는 3명의 어린이가 한꺼번에 트럭에 치여 숨지는등 17건의 교통사고와 1건의 동반사고가 발생, 모두 6명이 숨지고 3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남지방에서는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경기도내에서는 위자료시비로 이혼한 부인을 살해한, 전남편이 구속됐으며 충북지방에서는 1건의 강도사건이 발생, 3명이 구속됐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제주시내에서는 음식점화재로 6백2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그림·韓大雄>

同性연애끝에 자살

▲구랍30일 밤0시15분께 서울구로구가리봉동327대동전자주식회사 기숙사에서 이 회사 여공 金모양(17)이 음독자살.

동료여공 鄭모양(18)에 따르면 평소 동성연애하던 金양과 가깝게 지내오던 자신이 1개월전에 남자친구가 생겨 사이가 소원해지자 金양이 계속 죽고싶다고 말해왔다는 점으로 미뤄 동성연애의 절교를 비관한것으로 경찰은 추측했다.

술취한 스님 行人에 행패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인에게 목탁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린 대한불교총화종소속 승려 梁在達씨(40·법명·普成·충남瑞山郡瑞山邑東門里 산38)를 즉심에 넘겼다.

梁씨는 구랍30일하오5시반께 서울충정로2가 160 시내버스 정류장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과 시비를 벌이다 버스를 기다리던 金炳洙씨(32·상업·서울동대문구이문동 386의3)가 쳐다본다고 목탁으로 金씨의 안경을 쳤다는 것.

외근형사 사기앙양위해 콜롬보賞 시상

▲서울노량진경찰서는 외근수사형사들을 위해 「형사콜롬보」 상을 제정, 구랍28일 하오6시 본서강당에서 제1회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수상후보로 참석한 45명의 외근수사형사 가운데 82년도 콜롬보금상 수상자엔 兪亨植순경(43)이, 은상엔 李元基수경(42), 동상엔 徐永達순경(43)등이 뽑혔다.

노량진경찰서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콜롬보상은 △정의사회구현에 솔선수범하는 형사상 정립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유있는 인간미발휘 △관료적 군림성을 벗고 인권옹호의 선봉장으로서의 봉사정신을 발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Eglinton Millwood Bayview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실비아·윈

신문에 안난 現場

춤춘男子 술에藥타먹여 돈훔친 女제비족

위한 경찰사정에 쉬지를 두었다.

▲서울북부경찰서는 카바레에서 남자손님의 술잔에 신경안정제를 타 의식을 잃게한후 금품을 훔친 千京子씨(30·전과2범·주거부정)를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千씨는 지난달 20일밤 9시께 수유동 쌍용카바레에서 만난 尹모씨(36·회사원)와 춤을 추다가 맥주에 신경안정제 4알을 타 마시게 해서 의식을 잃게한후 여관으로 데리고 가 尹씨의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30만원,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7장등 모두 1백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었다.

실종獨子 父母신고

▲지난 연말에 집을 나간 6세의 남자어린이가 6일째 돌아오지 않고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堤川시靑田동 문화아파트305호 김진원씨(40)의 외아들 종환군(6)은 구랍29일하오2시께 집을 나간뒤 4일현재까지 소식이 없어 金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金씨는 결혼 10년이 지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자 지난77년 먼 친척으로부터 부모를 알수없는 생후 2개월된 종환군을 인계받아 아들로 입적시킨뒤 6년간을 키워왔다는것.

그런데 종환군이 집을 나간지 이틀후인 12월31일 金씨앞으로 발신인의 주소·성명이 없는 봉기우편이 배달됐는데 내용은 『뭐지 못하고 종환이를 데려가는걸 용서하세요.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돼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일단 종환군이 유괴된것으로 보고 행방수사에 나섰다.

日人부부 大邱화재때 귀금속찾는등 無事

▲서울강동경찰서는 강동구천호동 맥주집 H살롱주방장 崔모군(18)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군은 구랍29일 새벽 혼자 술을 마시러 들어온 李모씨(36·회사원)가 맥주8병등 2만7천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3만원을 내고 나가려하자 『아가씨 팁을 주라』며 시비끝에 맥주병으로 李씨의 이마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는것.

자신車에 그만…

▲구랍29일밤 8시10분께 서울관악구봉천9동635의60 李東熙씨(42)집 구멍가게앞 비탈길에서 경우교통소속 서울4파3031호 영업용택시 운전기사 李李吉씨(26·서울동대문구보문2동56의2)가 자신의 택시와 정차중이던 서울8가7479호 반트럭(운전사 尹와永·37) 사이에 끼여 숨졌다.

숨진 李씨는 이날 경사12도가량의 비탈길에서 차 앞바퀴쪽에 돌을 괴고 李씨집 구멍가게에 들어가 담배와 우유를 사러온뒤 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되지 않자 변속기어를 중립에 놓은뒤 차에서 내려 가게주인 李씨와 함께 차앞부분을 들어올려 바퀴에 낀 돌을 빼내려 했다는 것.

이때 괸 돌이 빠지면서 차가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가게주인 李씨는 몸을 피했으나 운전사 李씨는 차와함께 10m쯤 밀려내려가다 길아래 세워져 있던 트럭 적재함에 끼여 그자리에서 숨졌다.

▲大邱금호호텔화재로 사망한 사람가운데는 일본인이 3명이나 끼어있었는데 이중 307호실에 투숙했던 가와바다·시무로씨(37·일본 아이찌縣 가리야市) 부부는 불행중 다행으로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호텔에 감춰뒀던 금목걸이와 다이아반지등 싯가 3백50만원어치를 찾아냈다.

가와바다씨는 구랍 28일밤 부인 기요꼬씨(37)와 함께 투숙했다가 불이 나자 고가사다리를 타고 함께 내려와 발목을 다친 부인을 郭병원에서 치료받게 한후 부인과 함께 하오3시20분께 호텔총무과장 洪가휘씨(43)의 안내를 받아 투숙했던 방의 타다남은 카피트밑에서 급하게 숨겼던 패물들을 모두 찾아낸것.

藥器만 훔친 藥士

▲서울강남경찰서는 元顯武씨(29·약사·성북구길음동)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記者 수첩

경찰에 따르면 절도전과 3범인 元씨는 구랍27일하오3시께 강남구신사동 리버사이드호텔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무대에 있는 프랑스제 셀바·메네세시론 1대, 앨토색서폰1대등 싯가 1백40만원상당을 훔친것을 비롯, 지난달20일하오1시께 도 강남구역삼동 남서울호텔 나이트클럽에 침입, 야마하 전자피아노1대(싯가 1백50만원)를 훔치는등 지난해 12월초부터 지금까지 나이트클럽만을 골라 4차례에 걸쳐 자동 악기를 훔쳐냈다는 것이다.

유흥업소 악단원으로 일해온 元씨는 악사들이 낮에는 근무하지않는 점을 악용, 대낮에 나이트클럽에 찾아가 종업원들에게는 『밴드마스터가 고장난 악기를 수리하라고해 종로구낙원동 모악기사에서 왔다』고 속인뒤 범행했다.

경찰은 元씨가 『키보이스』라는 악단멤버의 공연회원증을 소지하고 있는점으로 미뤄 이같은 회원증을 보여주고 또다른 범행을 했을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팁是非 싸움까지

▲서울종암경찰서는 술집에서 팁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술집주인등을 폭행한 金수영씨(25·인쇄공·성북구삼선동) 金정태씨(25·성북구장위2동) 등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24일밤10시30분께 서울성북구장위2동50의25 맥주집 『귀빈』에서 술을 마시다 접대부와 팁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중 주인 金春子씨(여·41)가 이를 말리자 욕설과 함께 맥주병을 깨 金씨의 얼굴을 찌르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 金모군(19)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다.

가스중독환자 치료않고 보호자 폭행한 의사

환자방치한 醫師

▲서울서부경찰서는 의사 金ㅇ來씨(30·성북구동선동4가26)를 의료법및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달 19일밤 11시4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서대문구남가좌동102의23 회생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중 연탄가스에 중독돼 치료를 받으려온 李정렬씨(65·여·남가좌동164의86)에게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가 이를 항의하는 李씨의 친지 徐정태씨(27)에게 『바쁘면 다른병원에가면 될것 아니냐』는 폭언과 함께 徐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中央線침범 長官車도 적발한 교통경찰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판 승용차운전기사 池경용씨(34)에 대해 3만원의 벌칙금통고와 함께 3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池씨는 지난달 7일 하오7시반께 서울중구남대문로5가구도큐호텔 앞길에서 장관 승용차를 몰고 가던중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다 적발됐다는 것.

위반당시 장관은 승용차에 타고 있지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회정화위원회가 지난해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법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국무위원급 승용차가 적발된것은 처음인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제1호 기록

▲癸亥년을 맞아 각 부문별로 제1호를 기록한 것을 간추려 본다.

출국=1일 상오9시10분 대한항공 617편으로 떠난 미국인 M·캐랄씨(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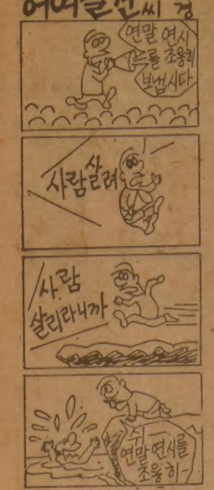
입국=1일 상오6시20분 대한항공 015편으로 도착한 브라질 교포 신배순씨(43)。

국제전화=1일 0시 일본 나고야에 전화를 건 高見산업대표 徐建豪씨(47)。

출산=1일 새벽 0시1분 을지병원서 출산한 마포구 도화동 金주경씨(26·여)의 첫딸。

출소=1일 새벽 5시 서울 세동구치소에서 출감한 절도범 이영우씨(26·가명)。

〈정리=鄭升鎬기자〉



(안양시 석수동 관악아파트 18동101호)

(동대문우체국 BOX 94호 현대레포츠社)

◇가정 단말기를 이용한 쇼핑。

◇자동차 운전 계기판。

◇로보트 조립 라인。

◇인공심장。

″세상 많이 달라지네″ 10년후의 생활양식

컴퓨터가 뭐든지… 宿題·쇼핑도 척척

세계 부국(富國)에선 생활 스타일의 혁명이 82년도에 일기 시작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컴퓨터 보급이 보편화되어 전기처럼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호에서 이같은 조짐을 감안, 고도기술의 미래와 우리 생활과의 관계에 관해 각계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갖고, 이를 근거로 10년후인 1992년에 미국 중류 가정에서 예상되는 생활 패턴을 추출해 냈다。

冷·煖房장치 맘대로 조절

스미드씨의 12살 짜리 아들 프레디군은 숙제를 할 때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정용 컴퓨터로 해낸다。 레이저 비디오 디스크에 녹음된 백과사전을 가정용 컴퓨터에 걸어 문자판 앞에 앉아 리포트를 작성한다。 과제는 로마。 컴퓨터 문자판을 읽고나서 그는 영화로 로마 시내를 관광한다。 필로세움등을 관람한 다음 그는 편집을 하고, 컴퓨터에 수록된 사전을 이용, 철자법이 틀리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컴퓨터의 단추를 눌러 학교에 제출할 인쇄된 프린트를 만들어낸다。

스미드씨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는 1982년도에 쓰던 최신 컴퓨터에 비할 때 훨씬 더 정교한것이며, 美국방성이 1960년대에 쓰던 대형 컴퓨터보다도 10배나 더 성능이 뛰어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컴퓨터로 잡다한 가사를 모두 도맡아 할수는 없는 것이다。 침대를 챙기고 가사도구 따위를 가지런히 챙길수 있는 컴퓨터는 이 때까지 없다。

모두 외출땐 집에사람있듯 전등明滅

세계도처 뉴스·프로 청취

그러나 일상적인 가사는 컴퓨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난방·냉방장치를 조절하고, 실내공기에 습기를 가감하며, 겨울철에 외풍을 막도록 커튼을 드리우는 등의 일을 수월히 해내고 있다。 또 밖에서 문과 창문으로 침입자가 들어오는지를 탐지해낸다。 스미드씨네 가족이 외출하고 없을 땐 전등을 켰다 껐다 해서 마치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위장도 해놓는다。

지중(地中)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수백개의 통신위성이 지구궤도를 선회하고 있으며, 컴퓨터가 스미드씨 가정을 세계와 연결시켜 준다。 접시형 안테나가 스미드씨집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통신위성의 전파를 수신하며, 광섬유 케이블로 송수신하는 펄스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 세계 도처의 뉴스와 오락프로를 청취한다。

프레디군의 어머니 바버라여사가 집에 보내오는 청구서를 보고 돈을 지불할 때도 컴퓨터를 이용, 은행구좌에서 필요한 돈을 빼내어 다른 구좌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쇼핑의 대부분도 컴퓨터를 이용한다。 수많은 우편 주문 캐털로그를 보는 대신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물건을 선택한다。 프레디군의 아버지 존씨가 몸을 사려고 하면 색인표를 보고 키를 누르니 스크린에 나타났다。 잠깐 실물을 보고 사기로 결심한 존씨는 터미널의 키를 눌렀다。 며칠뒤 실물이 도착하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대금을 지불한다。

바버라여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조절하는 코피포트가 매일 아침 가족들이 잠을 깨기 10분에 자동적으로 끓

銀行예금·인출도 도와

가족들 잠깨기 10분전 코피끓여

스미드씨네는 자주 거는 번호들을 프로그래밍해 두고 있다。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 바버라여사는 M버튼만 누르면 된다。

바버라여사는 겉으로 봐선 1982년형과 비슷한 차를 타고 매일 아침 출근한다。 그러나 속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소형 컴퓨터가 있어 연료분사에서 스파크플러그, 타이밍까지 모든 엔진기능을 조절해 준다。 특히 길 눈이 어두운 존씨같은 이에게는 아주 편리한 기능도 갖고 있다。

車길 자동적으로 안내

길을 잃었을 때 존씨는 작은 키보드에 방향을 타이핑한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신호를 통신위성으로 송신하고 통신위성에선 현재 존씨의 정확한 위치를 송신해 주며, 컴퓨터가 존씨에게 어느 길로 가면 가장 빠르고 좋다고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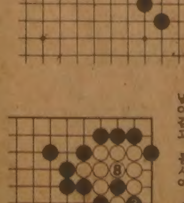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은 대개 타이프라이터를 애용하고 있으나 존씨는 쓰기를 좋아한다。 그의 가정용 단말기엔 음성감지시설을 해놓아 그가 말하면 컴퓨터가 그것을 글로 쓴다。 짧은 편지를 쓸 땐 자기 필기를 이해하는 전자서판(書板)을 이용한다。 존씨는 이 서판을 이용해 새로운 비행기 부품을 설계도 한다。 컴퓨터를 이용해 존씨는 이 설계도를 완성한다。 공장에서 새 부품을 생산키로 결정만 하면 공장의 컴퓨터 조절기계가 필요한 수정만 하면 된다。 로보트가 조립을 하고 힘든 일은 무인 포크리프트가 해낸다。

퇴근후 스미드씨 일가는 보통 집에서 보낸다。 TV도 보고 레이저 디스크로 음악도 들으면서。 음악을 즐기는 프레디군은 거의 매일 밤 신디사이저로 자기 음악을 연주한다。 피아노 건반이 달린 이 신디사이저로 그는 거의 모든 악기의 음색을 모방해내고 있다。 스미드씨네는 컴퓨터가 없는 세상을 상상도 못하지만 존씨는 컴퓨터만능의 세상에 싫증을 느끼기도 한다。

일간 한국일보社에게 맡기십시요. (☎533~2361)
여러분의 광고및 인사는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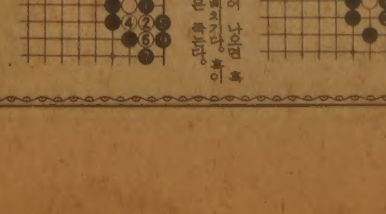
妙手풀이

<문제도> 黑先



아래쪽에서 삐치어서는, 늘려서 수가 안된다。 한걸음 더 뛰어드는것이 필요하다。

<해답도>



제1도=삐치기로는 성공할수없다고하면 다시 한번 뛰어들어가 1로 뻗이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배메우기의 좋은 수로 백2면 흑3으로 간단히 白死。

제2도=백2로 뛰어 나오면 흑3으로 끊어 5의 삐치기다。 흑이 넘어감과 동시에 백은 죽는다。

해외토픽

″西歐女性과 結婚말라″

아랍産油國들 총각에 계몽운동

아랍산유국들은 최근 아시아와 西歐여성들을 「국가의 장래에 대한 잠정적인 위협」으로 간주, 이들의 세력확장을 막기위해 賞罰정책까지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책의 목표는 아랍남성이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신부감을 구하려는 경향에 쐐기를 박기위한 것이다。

아랍남성의 외국인 여성 선호경향은 이미 수십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사회적·문화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아랍국가들의 사회조직과 특성에 일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다。

몇몇 페르시아灣 국가들은 벌써 남자들이 자국 처녀들과 결혼하도록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언론은 외국인 신부들의 단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국회의원들은 외국 여성들이 사치한 습관을 가지고있으며 西歐여성들은 진짜로 돈이 많이 드는 색시감이라고 젊은이들을 계몽하기에 바빴다。

또다른 반대자들은 외국여성과의 결혼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될것이며 결혼이 파탄에 처할 경우 이들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들을 「유괴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국제결혼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기관에서도 연구에 나서게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드국왕을 비롯한 아랍세계 지도자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자예드대통령의 부인 파티마여사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나라 남성이 국내여성과 결혼할 경우 누구에게든 10만디람(약1천8백만원)을 융자해 주고 이들부부의 첫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금은 무상지원금으로 전환시켜 주는 반면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에게는 같은 금액의 「결혼세」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사회복지성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했다。 【AP】

홀트의 遺業결실 美國現地보도 ㊦

샌프란시스코는 역시 세계적인 美港이다. 이곳다운 타운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가량 하이웨이로 달린다. 얼마후 도착한 곳이 포톨라라고 하는 고급 주택지였다. 울창한 수목이 원시림처럼 장엄하고 싱그럽다. 그 사이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한 별장풍의 저택이 보였다. 둘레가 2에이커(약 3천평)나 되는 훌륭한 저택이었다. 집주인은 로스·에드워드씨(44).

부인은 글로리어·에드워드여사(42)라 했다. 인자한 모습에 훤칠한 키의 로스씨는 1급 건축기사. 샌 마테오에 있는 웨브·콥 건축회사의 부사장이기도 한 그는 멀리 동방에서 찾아간 기자의 방문 목적을 듣더니만 함박만하게 입이 커지며 웃는다.

【샌프란시스코=卓成万기자】

양부모들 「한국인 뿌리교육 시켜」

이젠 成年이 된 그들의 生活相 르포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부는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요.』

그가 이처럼 기뻐하고 자축하는것은 부와 건강만의 은총이 아니었다. 이들 부부에겐 올해 7세된 타미라고 하는 한국계 입양아가 있었다. 지금 로스씨가 진정 감사하고있는 것은 바로 이 소녀를 자신들에게 준 「신의 축복」이었던 것이다.

예쁘고 상냥스런 타미양의 얼굴은 어딜 보나 순수 한국인 여아였다.

소녀의 위로는 대학에 다니는 두 오빠가 있다. 큰오빠 로스·주니어(20), 작은오빠 존(18)으로 둘 모두 키 1백90㎝, 1백80㎝나 되는 건장한 체구의 사내들.

이 속에서의 타미의 존재는 좀 과장된 표현으로 한떨기 장미같은 느낌이었다.

타미양이 이집에 들어온것은 막 태어난 74년9월. 거의 핏덩어리이다시피한 그녀를 입양해 온 로스·에드워드씨부부는 모처럼 점지받은 수양딸을 친자식 이상의 사랑을 쏟으며 길렀다.

『타미야말로 우리집의 보배죠. 이젠 그녀가 없는 우리들의 행복이란 상상할수조차 없으니까요.』

그러나 로스씨의 보다 깊은 사랑은 다음 말에서 읽을 수 있었다.

『감히 타미를 어떻게 기르겠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접어 두더라도 그녀에게 바라는 기대는 분명히 갖고있읍니다. 현모양처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한국사람인 그녀가 장차 자신처럼 불행한 한국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돕는 일을 하는것입니다.』

이런 로스씨의 생각은 말로만의 의지가 아니었다. 얼마전 그는 타미를 데리고 「한국미술 5천년전」을 구경했는가 하면, 명문스탠퍼드大學의 한국인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 저녁을 대접하기도했다. 물론 이같은 그의 노력은 타미에게 뿌리의식을 길러주기 위한것. 타미 역시 최근엔 TV등에서 혹 한국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깊은 관심을 보이는가하면, 지난 미스·유니버스대회 결선때는 『한국 사람이 왜 없느냐』며 화까지 냈었다고 로스씨는 전했다.

"타미는 「신의 축복」이며 우리집 보배지요"

커갈수록 자신이 한국인이란 강한 「自我」

◇타미양 (꼬마) 과 가족들。 양부모를 가운데로 양쪽에 두 오빠가 거인처럼 버텨 서 있다。

샌프란시스코만의 버클리에 살고있는 멜러디·J·카펠는양(23)은 버클리大學캠퍼스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에 자리한 사이클로토미이란 컴퓨터회사의 여지배인이었다.

가늘고 자그마한 키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한국여인인 그녀는 자신의 한국 이름이 박옥분이라며 또박 또박 한글로 써 보이고는 보조개도 예쁘게 생긋이 웃어보였다.

그러나 순간 『생후6개월때 미국에 입양 온 것으로 안다』고 덤덤이면서는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난해 전미국에서도 몇째 안에 드는 명문 버클리大경영학과를 졸업한 멜러디양은 자신의 지금 직업이 『노드캘리포니아州 우드 빌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아빠의 직업과를 대비시켜 볼때 전혀 무관한것만은 아닌것같았다』며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철없던 어린시절엔 물론 미국 아이와 똑같이 사고(思考)하고 행동했었다는 그녀는 『그러나 성장해갈수록 자신이 한국인이란 강한 자아의식이 움텄다』면서 『그 이유로는 우선 생김새에서 절코 백인 계열로 일컬어지는 커캐이전이 아니란 점이었다』고 야무지게 말했다.

지난80년 모국을 방문했을때였다. 성장후 처음 마주한 한국땅이기도 했지만, 여간 마음이 착잡한게 아니었다. 『분명 나는 한국인이다. 그런데 미국인으로 이곳에 왔으니…』 섬한 갈등이 그녀의 뇌리속을 세차게 몰아친 것이다. 그럴수록 좋은문화, 생부모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드높아졌고, 보름간의 여정이 짧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끝내 애타게 찾았던 생부모에 관한 소식은 듣지못한채 하염없는 눈물을 뿌리며 비행기에 올랐었노라고 했다.

산 호세고교시절 출곧 우등생이기도했던 멜러디양은 두 가지점을 늘 감사하며 살고 있었다. 하나는 불행중 다행히도 입양이되어 성공할수 있게된것, 다른하나는 어렸을때부터 양부모가 『너는 한국인이며 따라서 한국을 잊어선 안된다』라고 항상 말해 민족혼을 일깨워준 사실이 그것이다.

때때로 콩나물을 길러보기도하고, 김치를 사서 먹기도 해 배의민족의 맛임을 짙게 풍기며 살고있는 멜러디양은 2년후엔 대학원에 진학, 공부를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모국가면 나와같은 고아 한명 입양 계획"

의사된 스미드씨는 가난한환자 즐겨치료

크리스토퍼·J·스미드씨(30)는 젊은 내과의사. 흑인계혼혈고아로 훤칠한 키가 인상적이었다. 5세때인 57년에 미국으로 입양해 온 크리스토퍼씨는 어린시절 자라온 사우드 캐롤라이나를 떠나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州都 새크라멘토에 살고있었다.

롱비치 주립대학에서 4년간 동물학을 전공한후 다시 유 씨 데이비스 (University of California of Davis)의과 대학을 지난해 졸업한 그는 아직 롱비치 대학에 다니던 79년도 같은 반의 학생이던 흑인 여성과 결혼, 새 가정을 두었다고 했다.

『중고시절부터 공부벌레로 유명했었다』고 스스로를 평한 크리스토퍼씨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자신을 상상이나 할수있었겠느냐』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가 소속된 병원은 어 고장에선 크게 알려진 컨트리클럽 종합병원. 자신의 불우한 어린시절을 잘 알고 있는 그는 『그때문에 같은 의사이면서도 보는 환자의 개체가 다르다』고 전제, 『보통의사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요보호대상환자가 자신이 진맥하고 치료하는 환자의 반수가 훨씬 넘는다』며 만족한듯 환하게 웃었다.

생모에 대한 크리스토퍼씨의 애틋한 정 또한 그와의 대화를 갖는 동안 각별한 데가 있음을 느꼈다.

평소 늘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생각에 골몰하곤 했었다는 그는 『결국 지난75년 모국을 방문했을때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으나 허사였었다』며 서운해 했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서울을 다시 찾겠고 그때 부인을 함께 데리고 갈 의향임을 비친 크리스토퍼씨는 그 기회에 자신처럼 불행한 한국인 고아 하나를 양자로 데리고 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여섯살이던 1965년9월 미국에 온 金가련양은 지금 23세의 어엿한 미국인 처녀 카렌·S·보이킨으로 바뀐채 나름대로 누릴수 있는 최대의 복된 인생을 살고 있었다.

목사인 R·보이킨씨(66) 부부의 2남4녀(1남2녀는 친자·1남2녀는 입양아)중 3녀인 그녀는 지난5월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비올라대학 간호학과를 나와 현재 자연약재 판매회사인 허벌라이프社의 상담역으로 일한다고 했다.

기자의 면담 요청에 손수 만든 쿠키를 들고 달려온 보이킨양은 『멀리 모국에서 오신 반가운 손님들이기에 서둘러 솜씨를 발휘해 봤다』며 처녀다운 수줍음을 감추지 못했다.

콩나물을 길러 보고 김치를 사먹어 보기도

사랑많던 어머니·무서운 아버지…기억생생

◇지난해 버클리大 경영학과를 졸업할 때의 멜러디양。

외모로 보니, 입양과정으로 보아 그녀는 틀림없는 순수한국혈통이었다. 그러나 서류상으론 혼혈로 잘못 기재돼 한때 이 문제로 남모를 고민도 많이 했었다는 보이킨양의 설토였다.

그녀에겐 5세까지 친부모와 함께 산 기억이 있었다.

『어느날이었죠.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따라 시장엘 갔는데 그만 길을 잃었나 봐요. 한참을 갔는데 기차 정거장이 나오더군요. 어린 마음에도 정거장엘 가면 쉽게 집을 찾을줄 알았던거죠. 그러나 이 예상은 무작정 기차에 오르면서 영영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때 왜 기차에 타게 됐는진 지금도 영문을 모르고 있어요. 아뭏든 그후 경찰관이 여러가질 물었으나 대답을 잘 못하자 홀트로 넘겼던것 같아요.』

천도 근처의 시장과 바다를 낀 집많은 동네, 그리고 지독히도 가난했던 집안에서 어렵게 살던 『아픈 기억』, 열심히 살려던 사랑많고 인정많던 어머니에 비해 게으르고 술주정뱅이인채 마구 어머니를 두들겨 패던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등등 어린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는 보이킨양은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것같다』며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머금었다.

이런 자신의 극적 인생역정으로해서 매사를 하나님 본위로 처리하게 됐다는 그녀는 『2년전 모국방문때 그토록 찾아 헤맸던 친부모를 못찾고 온것이 여간 가슴 아프지 않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년2월 州정부가 실시하는 간호원자격시험에 합격되는 즉시 바로 대학원에 진학, 앞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가정및 결혼상담원이 되는것이 가식 없는 자신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녀는 『요즘도 기도시간엔 모국과 모국에 계신 생부모에 대해 늘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은 결코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않을 것임을 믿고 확신한다』고 말해 강한 그녀의 신앙도를 나타내 보였다.

로스앤젤레스 남쪽 약2백50㎞떨어진 샌디에이고에서 그곳 크리스천 교회 부목사로 일하는 재임즈·대니얼씨(25)는 여동생 세린·대니얼(24)을 대동하고 모국의 나그네를 만나러 로스앤젤레스까지 3시간반에 걸친 새벽 하이웨이를 달려왔다.

한국인 남매간인 이들은 재임즈가 11개월, 세린이 9개월때인 지난57년 교사인 가드·대니얼씨(62)부부에 의해 입양된바 있다.

그러나 뜻밖의 불행이 이들 어린남매에게 엄습했다. 입양5년이되던 61년 그토록 사랑을 쏟아주던 양모가 세상을 떠난것이다. 홀몸이된 양부의 당혹은 매우 컸다. 아이들때문에 그는 68년 재혼을 한다. 이와함께 계모의 강한 입김이 작용돼 남매는 서로 헤어지는 시련을 겪는다. 즉, 동생 세린이 이모부에게로 떠맡겨져 간것이다. 하지만 양부의 재혼은 오래가지 않았다. 심한 의견충돌로 72년이혼을했고, 그리하여 남매는 다시 한집에서 자랄수있게됐다.

◇샌디에이고에서 副목사로 시무중인 대니얼씨와 그의 양아버지 가드·대니얼씨。

재차 홀아비가된 양부밑에서 졸은 열심을 다해 공부했다. 마침내 재임즈는 지난80년 퍼시픽 크리스천대학을 졸업, 현재 부목으로 있으면서 곧 대학원 진학을 준비중이며 세린역시 닉슨 전미국대통령이 나온 위티어대학을 졸업한뒤 현재 사우드 웨스턴大법대에서 가정법을 연구하는 장한 성인들이 되었다.

『인간에게 봉사하고 싶다는 제 뜻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셨던것 같습니다. 절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주셨으니… 동생도 분야는 다르지만 변호사가 돼 불우한 사람을 돕겠다는 뜻에선 저와 마찬가지 생각이죠.』

아버지로부터 인내와 사랑을 배웠고, 따라서 자신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재임즈·다니얼씨의 말이었다.

모국과 모국에 계신 생부모를 위해 기도해

"入養은 인류애 실현의 숭고한 일"로 답변

바버러·사까다니양(25)은 로스앤젤레스의 南加州 대학(USC) 사회사업대학원 재학생이었다. 그녀의 본명은 바버러·에드워드. 에드워드가 사까다니로 변한것은 80년에 결혼한 日本人 남편 사까다니씨의 성을 땄기 때문이다.

바버러양이 미국에 온 것은 8세때인 1960년, 철도공무원인 웨인·R·에드워드씨(52)부부의 양녀로서였다. 두 부부는 어린 바버러에게는 이런 말로 교훈하곤 했다.

『넌 동양사람이다. 그러기에 외모는 우리완 다르다. 그러나 그것뿐, 그 외에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다. 동양인이기에 불가능한것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동양인이기에 성취할수 있다는 자신을 가져라. 다만 거기엔 너의 훌륭한 가치관이 수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 말을 지금까지 바버러는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다. 남을 돕는일, 앞으로 사회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도 결코 양부모의 이같은 가르침이 아니었던들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2년전 결혼한 부인과 함께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대니얼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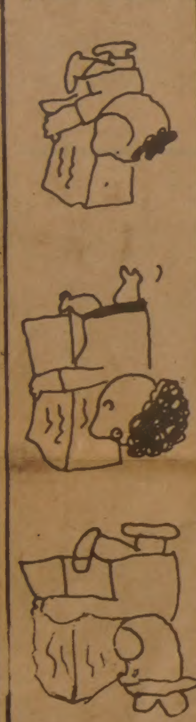
대학원과 가정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서도 입양아들을 미국내 공항에서 맞아들이는 「국제공항영접단」의 일원으로 종종 LA공항에 나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바버러양은 『양부모들이 입양아를 맞아 기뻐 어쩔줄을 모르는 광경은 보고 또 보아도 감동적이며 더욱 3살짜리 꼬마들을 볼 대면 22년전 내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게 돼 감개가 무량해진다』고 했다.

끝으로 사회사업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국제입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바버러양은 『종족관념을 초월하고, 인류애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숭고한, 일인것같다』고 말하고 『나 역시 앞으로 내 몸에서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를 입양해 기를 계획으로있다』며 옷매무새를 고쳤다.

바버러양의 이 말은 기자가 본 입양고아의 극히 작은 편린에도 불구, 적잖게 공감을 주기에 족했다.

더욱 기자의 여정에서 줄곧 안내를 맡아 주었던 유진 오리건州의 홀트국제아동복지회장 데이비드·金박사(53·神博·한국명 金李熙)의 결론적 코멘트는 많은것을 시사해주고 있었다.

『국제입양은 지금의 한국에서처럼 크리스천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모세도 입양아였고, 벤허도 역시 입양아였읍니다. 성경적으로 그들은 훗날 훌륭한 사람들이 됐읍니다. 지금 한국에서 온 입양아들이 장차 미국에서 큰 인물이 안되리란법도 없읍니다. 충분히 우리 민족은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끝】



구독신청
월~토
☎ 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83년 새해!>

새희망 새로운 정신 이젠 남은건 새 색시만 맞아들이면 된다.
—노총각—
김갑철(土月文友會·전북 부안군부안읍선은리1구)

강두현(전국낙서문학회)

<적자인생>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고르고 고르다 결혼 못한 노총각·처녀들의 인생.
피처마운드

<슈퍼 새앙쥐>

쥐구멍도 김일성의 땅굴만하게 파놓을게 아닌가.
가물치(한국낙서회)

지금 웃는중 落書

<새해는 광땡이다>

83년이어서.
—꾼—

★<천수도란?>

조금만 가물어도 중단되는 고지대 상수도다.
주영훈(전국 낙서문학회·부산지사 김해대리점 판촉사원)

<처가 덕에 아파트에 사는 공처가의 명언>

처가와 변소는 가까울수록 좋다.
장치경(서울동대문구청량1동235의1미주아파트7동1306호)

<진짜 명언>

도둑질을 하려거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강우(해병·서울강서구 등촌동사서함35호)

<방콕 A형 독감 극성>

전자 파세나 왕창 풀렸으면 들어오지 못했을텐데….
기라성(土月文友會)

<준법정신 잘 지켜 명랑사회 이룩하자>

피임법。
—가족계획협회—
조기영(土月文友會·면목1동91의31·3통3반)

<경고>

돈(金) 때문에 돈(豚)을 마구 살생하는 자는 복을 주지 않겠음。 —부처지—
하숙생(나서인간문화재1호)

<한국 프로권투에 거는 기대>

83년은 손 큰 남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
—82년의 완패를 설욕하기 위해서—
김갑철(土月文友會·전북 부안군부안읍선은리1구)

<알쏭 달쏭>

알쏭…암탉이 알을 낳고 부르는 노래。
달쏭…우주인들이 출발전에 부르는 노래。
韓心海(서울용산구주교동176의3 용일미싱)

<문법시간>

선생:「때린다」의 과거형은?
학생:네「때렸다」입니다。
선생:그렇다면 미래형은?
학생:독행죄입니다。
서정남(마천동서 중남동으로 이사했읍니다)

<메들리시대>

망년회 날 소주·동동주·양주·배갈·파인주를 메들리로 마셨더니 연시가 취중에 지나갔다。
장똘(윤석번·하도사 주송하십니다)

<과연 그럴까>

화장을 오래 하는 여성은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오래 있더라。
손진화(서울성북구석관동77의64)

<뛰면서 먹는 떡>

헐떡 헐떡。

<서민들의 바람>

돼지갈은 내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산신령(가난하나 깨끗하게)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M WORKING ON IT

필자의 시카고 사무실에 전화 고장이 생겼을때의 일이다。신고를받고 달려온 전화국직원이 수리를 하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전화가 불통이다。「다 되어 갑니까?」Almost finished?라고 물어 보았더니 I'm working on it.라고 대답했다。

어떤 일이 완결되었는지를 묻는데 대한 대답으로「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끝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다시 말해서「진행 중이다」「추진중이다」라는 말로써 자주사용되는 미국 영어 표현이다。

「직업을 구했나요?」Did you find a job?「아니오。아직 구하는 중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No, but I'm working on it. 하면 될것이고,「미국 영어회화를 배우셨어요?」Did you learn to speak American English?라는 질문에「목하 배우는 중입니다」는 I'm working on it.

담배를 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에게「담배를 끊었읍니까?」Have you quit smoking?이라고물었을 때「아직 못끊었지만 끊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고 할때는 I'm working on it. 이같이 하면 된다。

참고로 미국에온 분들은 영국식 영어보다는 미국식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왜냐하면 영국식 발음을 가지고는 발음의 차이때문에 미국에서 대화한다는것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이다。

A : Did you finish your chemistry assignment?
B : I'm working on it.
A : Class starts in twenty minutes.
B : I know.
A : Do you think you can finish it?
B : I can finish if you quit bothering me.
A : 화학숙제를 끝마쳤니?
B : 하는 중이야。
A : 수업은 20분후에 시작이야。
B : 알고 있어。
A : 그걸 끝낼수 있겠니?
B : 네가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끝낼수 있지。

＊in twenty minutes: 20분이 지나서。이때의 in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냄。장소를 나타낼 때는 in이「안에」의 뜻이지만 시간을 나타낼때의「안에」는 within이쓰인다。
※quit bothering me: 귀찮게 굴지 마라。(=leave me alone)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連載 소설

스물네살의 자서전 人肉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108

김포공항.
수속을 마치고 찻집으로 올라갔다. 조그만 가방 한개와 여권, 외환은행에서 바꾼 몇푼의 엔화와 여행자수표 그리고 추삼이 형이 만들어준 크레디트 카드 한장이 내 전재산이었다. 표창을 숨겨가지고 들어갈수 없다는게 신경 쓰이는 일이었다. 대신 옷 안에 플래스틱 단추를 여러개 달아두었고 라이터를 개조해 만든 용곱무기와 손톱깍이를 개조한 무기정도는 휴대하고 있었다.

『마음 놓으세요. 우리 일본 야쿠자는 결코 비겁하지 않습니다. 비겁하느니 차라리 할복자살하는 게 우리의 신념입니다.』

사사끼가 이렇게 말했다.

『두고 보면 알겠죠. 비겁한 꼴은 나도 못보는 놈입니다. 당신 모가지를 걸 수 있겠소?』

지난 줄거리

역습으로 아베란 실무책임자와 그 일당을 잡는다. 계곡의 차가운 물 속에 처넣고 신판 정신대 조직의 배경을 꼬치꼬치 캐냈다. 그러나 아베는 하부조직의 두목일 뿐 깊은 내막을 캐낼 순 없었다. 총찬은 드디어 일본으로 들어갈것을 결심하고 사사끼를 만난다. 후꾸오까의 비밀 본부에서 초청장을 보냈고 총찬은 호랑이굴로 들어갈 채비를 한다.

『걸겠소.』

사사끼 목소리는 침착했다. 보통사내는 하던 것 같았다. 우리 애들이 좌악 깔려 있는데도 눈빛에 기 죽는 기색이 없었다. 여차하면 뼈가 으스러진 신세인데도 당당하려고 애쓰는 눈치였다. 야쿠자의 근성을 저키려는 것 같았다.

『좋습니다. 나도 목을 걸겠소.』

그동안 사사끼와 나는 여러 차례 정정당한 자리를 만들어 왔지만 마상 비행기에 오르려니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싶었다.

사사끼는 악수를 하고 사라졌다.

『저 새낄 인질로 잡아둘까요?』

한 녀석이 사사끼 뒤통수를 가리키며 물었다.

『놔둬라. 절대 건들지 마라. 우린 비겁할 수 없다. 설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은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내 신변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란 것도 애들은 짐작하고 있었다. 일본은 내 마음 속에 언제나 적지(敵地)였다. 굳이 역사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나는 혼자라도 일본을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었다.

더구나 한국의 처녀들이 놈들에 뜯어먹히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수는 없었다.

하나님.

갑니다. 만약 내가 죽거든 당신도 할복자살해야 할 겁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이번에 보여주십쇼.

하나님. 난 살아남아야 할 놈입니다.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물어 뜯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하고 말고요.

안내방송을 듣고 짐을 챙겨 일어섰다. 계단 아래에 떼치 형이 부동자세로 서있었다. 가죽 반코트에 깊숙이 손을 찔러넣은 채 빙긋이 웃었다.

『형, 웬일유?』

『그냥 왔다.』

『끝까지 고집 부려서 미안해요.』

『정말 몸조심해라. 이건 급할 때 써라. 도움이 필요할 때 뒤에 전화번호도 있다.』

『고마울 때도 다 있수, 형이.』

『비행기 안에서부터 신경 좀 써라. 옷 함부로 벗어두지 말고.』

『겁 주는 거요?』

『좀 주면 안되겠냐?』

『명심할테니 염려마요. 장총찬이가 시체로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쪽발이한테 죽느니 차라리 자살하고 말지요.』

나는 후꾸오까(福岡)행 9시40분발 비행기를 타기 위해 넓은 복도를 걸어 나갔다. 바로 얼마전에 이 자리에 서서 다혜와 뜨거운 입맞춤을 했고 사랑한다고 악을 쓰던 자리였다.

악수를 나누었다. 새벽부터 나를 배웅하기 위해 나온 애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긴장되어 있었다.

『이 새끼들아 힘 내. 살아 올테니까.』

나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외국행 비행기였다. 가슴이 설레기도 했고 일본에 도착 했을 때 벌어질 상황이 불안하기도 했다.

보안검사대 앞에 섰다. 자꾸 손톱깍이가 마음에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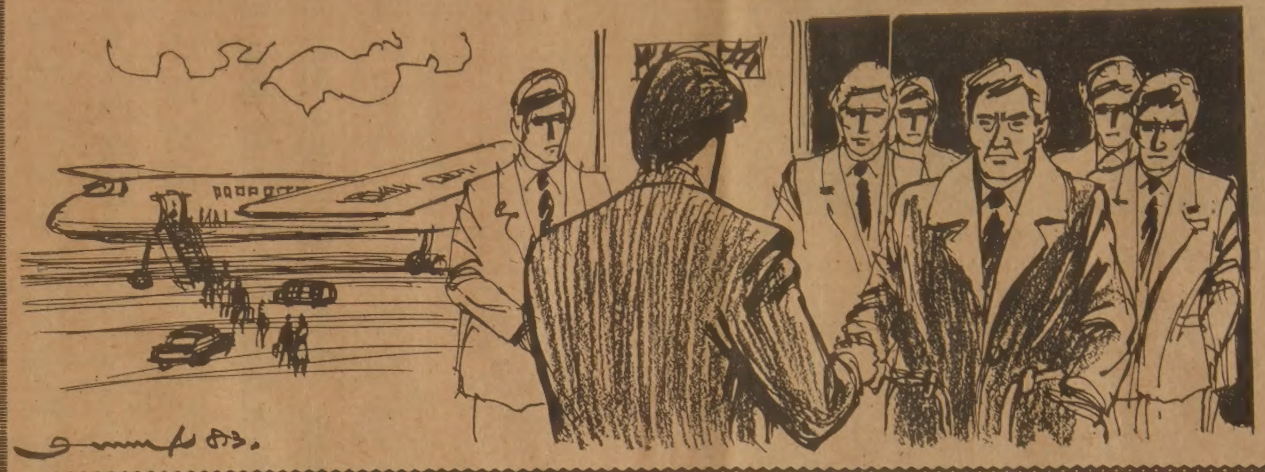
『이게 뭡니까?』

보안검사하던 남자가 손톱 깍이를 집어 들었다.

『외국간다고 손톱 길지 말란 법 없잖아요?』

『발톱도 물론 길겠죠.』

검사요원은 씨익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보통 손톱깍이보다 크지만 그



내가 장총찬이다! 환영을 이따위로밖에 못하겠어?

안에 무기로 사용한 만한 것이 꼴어 있으리라곤 생각지 못할 것 같았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감쪽같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검사요원은 정확하게 칼날이 들어 있는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날카로운 칼이 불쑥 삐져나왔다.

『손톱 다듬는 겁니다.』

내가 얘기해 놓고 보아도 좀 옹색하고 궁상맞아 보였다.

『좋습니다. 열심히 다듬으십쇼.』

검사요원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딱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농담같은 걸 하리라곤 생각지 않은 것이었다.

출국수속을 마치고 면세점이 늘어선 상점을 주욱 훑어보았다. 내가 상상했던것 만큼 물건이 많지는 않았다. 더구나 내게 필요한 물건은 담배 뿐이었다. 무기가 될만한 것은 눈을 훑뜨고 찾아도 없었다. 거북선 열갑을 사넣고 넓은 대기실 한쪽 구석에 앉았다. 누군가 내 행동을 관찰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자 괜히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다. 감시받는 건 피로운 일이 분명했다. 쪽발이들이 출발지점에서부터 따라붙을 거란 뻔한 말에 온 신경이 곤두서는 판이었다. 담배를 피나물고 눈치 채지 않게 주위를 훑어보았다. 모두 감시자같기도 했고 모두 방관자같기도 했다.

일본사람은 쉽게 구분이 되었다. 머리가 짧았고 아무래도 하중이 빠뜨는듯한 느낌을 받게 마련이었다.

게이트 넘버 3。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나는 맨 뒤쪽에 처졌다. 쓸데없는 짓인줄 알면서 잠깐이라도 감시받긴 싫었다. 이제 일본 땅에 도착하면 숨 한번 크게 쉬기도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했다.

비행기는 땅을 차고 올라섰다. 내가 살던 땅이 내려다 보였다. 공중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은 건물이 다닥다닥 영글어 붙은 것 같았다. 남쪽으로 내려 갈수록 아직도 산은 헐벗은 채였고 사람 살 곳은 무한하게 많아 보였다.

담배를 피워도 좋다는 신호가 떨어졌다. 나는 오래 참았다는 듯이 담배를 피워 물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어서 편했다. DC10기의 가운데 자리는 다섯명이 붙어 앉는 자리였다. 건너편 좌석에서 신바람나게 떠드는 녀석이 눈에 들어왔다. 옆에 앉은 늙은이에게 말을 시키는 것이 일본을 한두번 드나들었던 사내같았다.

『일제시대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일본사람들 잘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비행기 소음 속으로 또렷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늙은이가 사내 녀석에게 긍정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사내 녀석은 더 신바람이 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부터 확 뜯어 고쳐야 돼요。제가 서너번 들락거렸지만 근면하고 친절한건 언제봐도 변함이 없었어요。그러니 자연 자주 가게 되고 그쪽 물건사 들고 올 수밖에 없죠。물건 한개라도 보시면 알잖아요。가보지도 않고 욕만 하는 친구들 보면 한심해요。이번에 들어오실 때 보면 알지만 우리 공항 얼마나 빡빡한지 아세요? 여간이 안돼서 그렇지 일본서 살 수만 있다면 거기서 살고 싶어요。』

사내 녀석은 점점 꼴을 볼수 없게 말을 해나갔다.

『이봐, 대한민국 친구!』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녀석이 눈을 치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 너 말이다.』

나는 녀석을 가리켰다.

『……。』

『너, 한번 더 그 따위 아가리 놀리면 비행기에서 내던져 버릴테니까 지금부터 숨도 쉬지 말고 가라.』

『당신 누구야?』

삼십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반쯤 일어서며 물었다. 나는 후다닥 벨트를 열고 일어나 녀석의 뒷목을 한대 갈겼다. 앞좌석으로 대가리를 푹 파묻었다. 옆에 있던 늙은이가 겁먹은 듯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아저씨. 저런 새끼가 헛소리 하거든 따귀라도 한대 올려붙여야 할거 아닙니까.』

『……。』

늙은이가 아무말 없이 눈길을 내렸다.

『이 자식아. 너같은 놈만 없으면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 라는거 알아?』

사내는 아픈 목을 진채 허리를 세웠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시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런게 아닙니다.』

워낙 다급했는지 사내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런 식으로 또 까불면 목을 비틀어버린다고 전해라

『잔소리 말고 일어나서 큰소리로 노래 한마디 불러라。수 틀리게 나오면 정말 그냥 안둘테니까。』

나는 혈을 지그시 누르며 이렇게 말했다.

『제발 나주세요。할께요。한다니까요。』

다급했든지 사내는 두손을 싹싹 비볐다.

『일어나!』

사내는 일어섰다.

『태극기 불러.』

『태극기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라는거 있잖아.』

사람들이 키들키들 웃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서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았다.

『잘했소, 젊은 양반.』

중년 신사가 걸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사내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다.

『더 다구지게 다루쇼. 젊은 녀석이 저모양이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소.』

중년 신사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도 이렇게 말했다. 사내가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일어나서 입술에 침을 발랐다.

『앉아!』

사내가 덜썩 주저앉았다.

『쪽발이들만 없으면 노래를 시키겠다만, 참는 거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혼이나 뺏기지 마라. 알았어?』

『네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왔다. 가슴 한쪽이 아팠다. 내 동족을 쪽발이들 앞에서 창피스럽게 만들긴 싫었다. 일본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을 빼앗기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사내는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기체가 착륙준비를 하기 위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귀가 멍멍하기 시작했다. 기압의 변화가 몹시 기분 나쁘게 엄습해 오기 시작했다.

바다를 끼고 비행기는 내려꽂히고 있었다. 후꾸오까 공항의 모습이 보였다. 해변으로 줄지어 펼쳐진 시가지 모습은 사람 사는 땅이 어디든 그렇듯 잘 정리되었다기 보다는 차라리 빈한한 마을 같았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한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시간이었다. 아침 9시 40분발 후꾸오까행 비행기를 탔는데 한시간도 걸리지 않아 일본 땅을 밟은 것이었다. 혼자라도 쳐들어오고 싶었던 나라 일본. 역사적으로 수없는 찬탈과 욕된 과거를 얽어놓은 일본땅.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수속하는 창구 앞에 섰다. 외국인 대열에 끼여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일본땅에 온 이유도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악착같이 달려들 수밖에 없는 내 신세를 또 생각해보았다.

매섭게 생긴 출입국관리가 나를 훑어 보았다. 앞머리를 퍼머넌트해서 얼굴이 더 길쭉해 보였고 하관이 빨라 만화책에서 보던 얼굴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다.

뭐라고 물었다. 일본 말이라 단 한마디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의 눈만 똑바로 쳐다보았다. 또 뭐라고 물었다. 이번엔 영어였다.

『한국말로 말해!』

나는 소리를 빽 질렀다. 뒤에 섰던 한국인들이 웃었다. 관리는 또 뭐라고 물었다.

『이봐 쪽발이, 한국말 안배웠냐?』

일본관리는 투덜거리며 표정없이 도장을 찍었다.

『고맙다.』

밖으로 빠져나가며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의 웃는 소리가 뒤통수에 남아 있었다.

문을 열고 나섰다.

장총찬 선생 환영.

한글로 또박또박 쓴 푯말이 눈에 띄었다. 눈매가 크고 짧은 치마를 입은 계집애들이 푯말을 들고 있었다. 그옆엔 콧수염 기른 가죽점퍼의 사내들과 한 눈에도 신사다와 보이는 복장의 사내들이 주욱 서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 옆을 스쳐 지나갔다. 대합실의 긴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나를 기다리는 사내들은 사람들이 빠져 나오는 곳에 시선을 준채 좌우를 훑어 보곤 했다. 한 눈에도 꽤 세련되어 보이는 중년 사내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공항에 환영나온 패들 가운데 두목급처럼 느껴졌다.

계집애들도 여러명이었다. 두목처럼 느껴지는 사내는 다른 사내들에게 푯말을 더 높이 들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다. 계집애가 더 높이 들었다. 사람들은 거의 다 빠져나온 것 같았다. 두목인 듯한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 갔다.

스쳐 지나면서 한방 갈겼다.

사내가 풀석 주저앉았다.

『내가 장총찬이다.』

사내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쓰러졌던 사내가 손을 내저었다.

『장총찬 선생이십니까?』

앞으로 썩 나서는 사내의 목소리는 유창했다.

『그렇다.』

『언제 나오셨읍니까?』

『환영을 이따위로밖에 못하겠어? 나오는것도 모르고 말야. 임마, 푯말이 뭐야? 폴래카드, 대형 폴래카드 하나쯤은 내걸어야잖겠어?』

『죄송합니다.』

『저 친구가 왕초냐?』

『그렇습니다.』

『넌 우리말 제 잘하는데 일본놈이냐?』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들 밑닦아주는 거냐?』

『아닙니다. 특별히 통역해 달라고해서 나왔읍니다.』

『재일교포냐?』

『그렇습니다.』

『그럼 인사 시켜라.』

일본말로 뭐라고 한참 설명하던 녀석이 내게 말했다.

『환영식을 크게 하겠답니다. 인사하시죠. 이쪽은 이시하라·유지로(石原裕次郞)입니다. 하까다(博多)의 지도자입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이시하라가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이시하라가 왼쪽 주먹을 날렸다. 나는 물아서며 잡은 손목을 어깨 위로 걸어 내던졌다. 비행장 대합실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임마, 그게 일본식 환영이냐?』

둘러섰던 사내들이 일제히 공격자세를 취했다. 이시하라가 손을 내저으며 뭐라고 지껄였다.

『미안하답니다.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랍니다. 나가시죠.』

『그런 식으로 까불면 목을 비틀어버린다고 해라. 분명히 그렇게 전하라.』

『예.』

나를 앞세우고 밖으로 나왔다. 대합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네 이름이 뭐냐.』

『황병규입니다.』

『재들 한국말 알아듣냐?』

『몇마디는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며칠 전부터 저한테 배웠으니까요.』

『준비 단단히 했구나. 어떤 상황이든 넌 내 옆에 붙어 있어라. 녀만은 탈없이 해둘테니.』

『알았읍니다.』

까만차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벤츠, 캐딜락. 우선 눈에 뜨인 것이 그랬다.

『타시죠.』

문이 열렸다.

내 옆엔 이시하라가 앉았고 그 앞엔 황병규가 앉았다.

『여긴 야꾸자들이 최고급 승용차를 탑니다. 그래서 대시간은 것들이 고급승용차가 지나가면 눈치 보며 피합니다. 골치 아프니까요.』

『훌륭한 나라다.』

『호텔은 뉴 오따니 호텔이랍니다.』

『부하가 몇명이나 되느냐고 물어봐라.』

『정식으로 결단식을 치른 부하가 2백여명 되고 기타 다른 부하도 많답니다.』

『뭐해서 먹고 사느냐고 물어봐라.』

『그냥 그렇답니다. 이곳도 요즘은 경기가 안좋아서 벌이가 다른 때 같지 않답니다.』

『나를 이제 어떤 작정이냐?』

『아름다운 관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답니다.』

자동차는 뉴 오따니 호텔 앞에 멎었다. 이시하라가 문을 열고 깍듯하게 손을 내밀었다. 심호흡을 하며 내렸다.

〈다음호에 계속〉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전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전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쎌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방관광여행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928-3335(B), 532-9581(R)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Minit-tune Gain gas station
We do all repairs ◉334 Dundas St. E. Mississauga
전화: (B)273-3920 (R)273-9821 이태경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광고문의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육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육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여자 스토아헬퍼 구함
경험자 우대.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8834 (오전 11시반 이후)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토·일요일은 자유. 월: $400.-
전화 : 499-5996 (저녁 6시이후) Mrs. 김

일본요리사 / 한국요리사 구함.
전화 : 923-3060 GRANADA 음식점

출퇴근하실 베비씨터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266-6355

출퇴근하시며 베이비씨터 하실 분.
전화: 665-9585 Mr. Lee(오후5시30분 이후)

Tavern에서 일하실 경험있는
젊은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491-9058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533-2361

구 직

템프로리 메니저자리 원함.
◉유경험자.
전화: 762-7004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인지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등불토요학교. ◉757-7828(김지현)
지원자격: 5학년~10학년, 영어·수학·한국어 ◉UT재학생과 졸업생 장소: Midland Ave. Collegiate Ins.(에그린튼×미드랜드)

바이올린 레슨.
푸로페션얼, 개인지도. All Level.
전화: 233-4200 Mr. Wong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Van트럭 82년도 GMC 회색
3,000Km-실내장식 완비
전화: 749-9687 Mr. 조

'81년도 Capri 4기통 AM, FM카세트.
Automatic 추렌스미션. Power 브레이크. 가격: $5,500
전화 : 536-8262(6시 이후)

스카보로에 있는 Bakery 매매함.
경험없어도 할수 있음.
주매상 : $3,500 아스킹 : $59,000
가격에 모든 도구 포함돼 있음.
전화 : 881-5186

Oakville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아스킹: $60,000(스탁 포함)
전화: 844-2950 로레인 또는 버니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아스킹: 2만+스탁. 렌트: 월 $625(가게와 2층살림집)
1054 Gerrard St. E. 전화 : 469-3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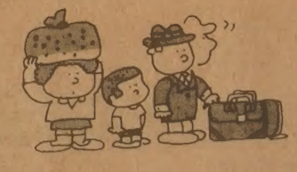
당구장 매매함.
비데오머신들과 스넥바 있음. 좋은 Plaza내.
전화 : 531-9216 (오후5시-밤12시) GEORGE

아이스크림 캐비넷 파실분 연락 바랍니다.
8Ft 나 6Ft. 쓰던것.
전화: 920-0539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년매상: $107,000 Net Net Plus.
11개스토아 플라자내. 아스킹: $1,200,000.25%다운.
◉1.3에이커. 따로 떨어진 두빌딩.
빌딩안에 Becker's 스토아와 Self Serve 개스 스테이션이 있음. 아스킹: $380,000.년매상: $34,000.Net Net.
◉Yonge Street에
금방 완성된 플라자. 아스킹: $5,000,000.10% Return.
763-5555 Doris Burda
Cholkan Real Estate Ltd.

아파트를 구하고 계십니까?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여자 룸메이트 구함. 1 Bed Rm. 아파트
Finch & Bathurst
전화 : 630-7594(저녁 6시이후)

3베드룸이나 1베드룸 타운하우스 렌트
즉시 입주가능.
전화: 532-9581(저녁7시 이후)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사무실 렌트.
연락처: 535-6004, 535-8801

미도파2층 렌트.(현재 입주 가능) ◉사무실과 살림 동시에 할 수 있음. ◉1Bed Rm. 화장실·부엌·사무실2개.
전화: 536-1692

1Bed Rm. 렌트(여성에 한함)
월: $130. 위치: Lawrence & Midland
전화: 759-3794 Mrs. 리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린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진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추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테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현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덕이)
전화 : 741-9170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한칼라현상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병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